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4호 1962년

평양 근로자사 발행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第14호 (207)

1962년 9 월 (상)

차 례

인민 경제 지도에서 중심 고리를 틀어 잡을 데 대하여

—김 일성 동지의 황철 교시 3주년에 제하여—

1959년 9월 4일 황해 제철소 당 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력사적인 교시가 있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 갔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김 일성 동지의 황철 교시가 가지는 거대한 생활력이 더욱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현 시기 황철 교시를 연구하고 그의 본질을 깊이 리해하며 그것을 계속 철저히 관철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경리 운영을 개선하며 6개 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

김 일성 동지의 황철 교시의 력사적 의의는 그것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일대 앙양기에 제기된 인민 경제 지도 문제를 전면적으로 풀 수 있게 하였다는 데 있다.

황해 제철소에 대한 김 일성 동지의 현지 지도가 있은 1959년 당시는 5개년 계획 수행에서 거대한 성과가 달성되고 계속 비상한 속도로 생산력 발전이 촉진되고 있던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대고조기였다.

낡은 생산 관계의 질곡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우리 나라의 생산력은 력사상 류례 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였다.

전후 5년 간에 매년 평균 42%의 비상한 속도로 장성한 우리의 공업 생산은 1959년 상반년에 전년 동기에 비하여 실로 75%나 장성하는 기적적 성과를 달성하였다.

공업 부문에서는 1959년 6월 말에 이르러 5개년 계획이 총 생산액적으로 완수되였다.

전후 년간 특히 5개년 계획 기간 우리 나라 공업 생산의 이러한 높은 속도는 중요하게는 우리 당이 인민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불러 일으켜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예비 동원을 위한 전 군중적 운동을 강력히 조직 전개한 결과 이룩된 것이였다.

1957년, 1958년에 전개된 《증산과 절약》을 위한 전 인민적 운동, 지방 공업 기지 창설을 위한 군중적 투쟁, 공작 기계 새끼치기 운동 등은 5개년 계획 기간의 생산력 발전을 결정적으로 촉진시킨 중요한 요인이였다.

그것은 공업 부문에서 1959년까지

5개년 계획에 예견하였던 기본 건설 투자 총액의 대략 70% 밖에 투하되지 않았는데 생산 수준은 5개년 계획 말에 예견하였던 1961년 수준을 115%로 릉가한 사실에서 또한 1957~1959년 간에 공업 생산은 총체적으로 308%로 장성한 데 비하여 지방 공업과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공업은 669%와 393%라는 비약적인 속도로 각각 장성한 사실에서 여실히 증명된다.

그러나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질서가 째워졌으며 생산의 기술적 장비가 상당히 제고된 1959년 당시에 와서 이것은 더는 생산력 발전에서 주되는 요인으로 될 수 없었다.

새로운 현실적 조건에서 주되는 예비는 지도 일'군들의 조직 사업에 있게 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1959년 10월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지금은 1956년이나 1957년도와 다르다. 그 때에는 우리 인민 경제를 급속히 장성시킬 만한 예비가 많았다.

아직 복구할 것도 많았고 널려 있는 자재도 적지 않았다.

또한 공장들은 조업을 시작한지 오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 지표들이 낮았다.

그러므로 지도 일'군들이 한 번 나가서 연설을 하고 사상 동원을 잘 하면 예비들을 비교적 쉽게 많이 동원하여 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사정이 달라졌다.

지금은 우리에게 1957년도와 같은 그러한 예비는 없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생산의 앙양이 그를 지도하는 지휘관의 능력 여하에 크게 달려 있다》(경제 사업에 대한 지도와 문화 혁명 수행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의 발전 속도를 한 계단 더 높이며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지도 일'군들이 원료, 자재, 설비 및 로력 등 생산의 제반 조건과 력량을 옳게 타산한 기초 우에서 생산 조직 사업을 튼튼히 틀어 쥐여야 할 절박한 필요성이 제기되였다.

그러나 당시 일부 당 및 국가 경제 기관 지도 일'군들은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이 객관적 요구를 리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시기 달성한 성과에 자만 도취한 나머지 모든 사업을 《단꺼번에》 수행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생산에서 중심 고리를 틀어 쥐고 그에 력량을 집중할 대신에 많은 건설 대상을 널어 놓음으로써 자재, 로력 등 력량을 적지 않게 분산시켰다.

이것은 현존 설비 리용률과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할 수 없게 하였으며 확대 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계속 보장하는 데 저애를 주었다. 또한 그것은 농촌으로부터 공업과 건설 부문에 막대한 로력이 들어 오게 함으로써 그러지 않아도 긴장된 농촌의 로력 사정을 일층 긴장시켰으며 공업과 건설 부문에서 식량과 부식물 및 주택 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우리 인민 경제가 질풍과 같이 발전하는 행정에서 발로된 이러한 결함들과 부족점들은 물론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며 따라서 경제 발전 행정에 본질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었다.

그러나 나타난 결함들을 바로 잡기 위하여 제때에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인민 경제의 계속적인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 전반에 커다란 저애를 주는 것으로 될 수 있었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인민 경제 발전 추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이러한 결함이 발생되던 초기에 제때에 포착하고 그를 전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명백한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이미 1959년 3월 함경북도 현지 지도에서, 동년 5월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그리고 9월 초에 공업의 한 점, 황해 제철소에 대한 지도를 통하여 황철과 금속 부문 나아가서는 전체 인민 경제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시였다.

당이 전국적으로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하여 그의 실천적 모범을 창조하는 대상으로 황해 제철소를 선정한 것은 우연하지 않다.

그것은 황해 제철소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골간적인 역할을 놀고 있는 기업소일 뿐만 아니라 당시 경제 건설이 철에 걸리고 있었던 조건에서 철을 생산하는 황해 제철소 사업을 우선 푸는 것이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의 사업을 풀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황철 교시의 기본 정신은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 발기에 근거하여 취해진 완충기의 설정에서 더욱 발전되였으며 빛나게 구현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1959년 12월 전원 회의 확대 회의에서 1960년을 완충기로 규정하고 지난 시기 우리가 급속히 달려 나오는 행정에서 일부 경제 부문들에 조성된 긴장성을 풀며 약한 고리를 추켜 세우고 인민 생활을 더욱 향상시킬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완충기의 설정은 인민 경제 부문들 간, 공업 및 농업 내부 부문 간의 발전을 조절하며 공장, 기업소들과 생산 설비들을 정비 보강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할 수 있게 한 우리 당의 적극적인 조치이다.

이것은 력량 관계를 옳게 타산하며 중심 고리를 틀어 잡을 데 대한 황철 교시의 사상을 인민 경제 전반의 지도에 구현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지난 시기 우리 당은 황철 교시를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 경리 운영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생산 장성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전국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 조직 사업을 비롯한 설비 관리, 로력 관리 사업이 획기적으로 개선 강화됨으로써 막대한 예비가 조성되였으며 조성된 예비가 생산력 장성에 동원되였다.

특히 1960년 완충기의 중심 과업이 성과적으로 해결됨으로써 5개년 계획 기간 달성된 성과가 공고화되고 새로운 비약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졌다.

2

황철 교시는 중심 고리를 틀어 잡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할 데 대한 맑스-레닌주의 일반적 원칙을 기업소 관리 운영 사업에 가장 정확하게 구현한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황해 제철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매개 시기에 중심 고리를 정확히 틀어 잡고 력량을 집중하여 그를 해결함으로써만 다른 모든 과업들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혁명을 지도함에 있어서 이러한 원칙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 공장의 생산이나 건설을 지도함에 있어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여야 합니다》.

김 일성 동지는 바로 이 원칙을 황해 제철소의 구체적인 현실에 정확하게 적용함으로써 생산 조직 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하였다.

당시 황해 제철소에서는 기본 건설만 하더라도 전로 직장, 압연 직장, 후판 직장, 박판 직장 등 무려 30 여개나 벌려 놓고 있었다. 이것은 개별적 건설 대상으로 보면 실로 249개에 달하는 것이였다. 그 중에는 생산에 그리 긴급치 않으므로 현재까지도 방치해 두고 있는 건설 대상들, 이를테면 저탄장 건설, 부산물 직장 건설도 포함되여 있었다. 기업소에서는 바로 이런 수다한 건설 대상에 많은 설비와 자재, 로력을 분산시켰으며 공무 능력의 70%를 여기에 돌리고 있었다.

그러다나니 철 생산의 정상화를 위한 설비와 자재, 부속품은 제때에 보장하여 줄 수 없었으며 제강 직장에서는 다섯 개의 평로와 한 개의 혼선로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였다. 그 결과에 생산은 정상화되지 못하고 심한 파동성을 띠게 되였으며 생산량은 감소되였다. 1959년 3월에는 1일 강철 생산량이 800톤이였다면 9월에는 500톤, 400톤 수준으로 저하되였으며 그로 인한 강철 손실은 5월부터 9월까지만 하여도 5만~7만 톤에 달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바로 이러한 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사업을 많이 벌려 놓을 것이 아니라 력량을 정확히 타산하여 사업량을 확정할 것과 우선 제철과 제강에 화력을 집중하여 설비를 제때에 보수하고 더욱 완비하며 부속품도 충분히 보장하여 줌으로써 이 부문 생산을 정상화할 것을 교시하시였다. 그리고 제강 부문을 정상화해 놓은 다음에 후판, 박판 직장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가서 새 직장 건설, 새 용광로의 건설 등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것은 황해 제철소의 구체적인 현실에 중심 고리 원칙을 가장 정확히 적용한 것으로 된다. 이 공장의 주요한 과업은 선철과 강철 및 강재를 생산하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보다 중요한 것은 선철과 강철이다. 선철과 강철 생산이 풀려야 다음 공정들도 성과적으로 풀릴 수 있으며 기본 건설도 순조롭게 진척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김 일성 동지의 교시가 관철됨으로써 그 이후 황해 제철소 생산 조직 사업에서는 일대 전환이 일어 났다.

무엇보다도 제철, 제강 부문의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데 기업소의 주되는 력량이 돌려졌고 공무 능력이 집중되였다. 그리하여 설비 리용률과 로동 생산 능률이 급격히 장성되였다.

(%)

		1957년	1958년	1959상반년	1959년	1960년
설비 리용률	1호 용광로	—	109.9	84.5	94.3	98.5
	평로	79.8	84.1	51.9	67.1	78
기업소 1인당 생산액 (1956=100)		135.8	127.3	—	119.4	144.7

상기 표는 황해 제철소에서 1959년에 일시 저하되였던 설비 리용률과 로동 생산 능률이 김 일성 동지의 현지 지도 이후 다시 급격한 상승의 길에 들어 섰다는 것을 보여 준다.

특히 1959년 상반년에는 1958년 년간에 비하여 설비 리용률이 전반적으로 현저히 떨어졌었다. 1959년 상반년 지표와 같은 해 1년 간 지표의 차이는 1959년 하반년에 설비 리용률이 급격히 장성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1959년 9월부터 철 생산에 력량을 집중하는 방향에서 생산 조직 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철 생산은 정상화되였으며 부단히 장성되였다.

건설 부문에서도 생산에 보다 긴급하고 또 중요한 것부터 우선 완공하는 방향에서 건설 대상이 16개로 축소되고 력량은 재편성되였으며 중요 대상들인 후판, 박판 직장들의 조업이 앞당겨졌다.

황철에서는 그 후 기본 건설에서 이 원칙을 계속 관철시킴으로써 기본 투자의 효과성을 현저히 높였다.

	개별적 건설 대상수	년간투자액 장성 비률	미완성건설액감소비률	년간투자액에 비한 미완성 건설액의 비률
1960년	153	100%	100%	157.8%
1961년	97	103%	35.8%	54.9%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해 제철소에서는 1961년에도 전년에 비하여 개별적 건설 대상수를 훨씬 축소시켰다. 결과는 년간 투자액이 증대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완성 건설액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현저히 감소되였다. 1960년에는 1959년의 영향으로 미완성 건설액이 년간 기본 건설 투자액보다 1.5배 정도로 많았다면 1961년에는 그것이 약 절반으로 저하되였다는 사실은 전년에 비하여 1961년에 보다 많은 기본 건설이 완공되였으며 개별적 대상들의 건설 기간이 현저히 단축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와 같이 중심 고리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미완성 건설 자금을 결정적으로 감소시키고 건설 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었으며 투하된 자금을 더 빨리 회수되게 함으로써 기본 건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제고할 수 있었다.

력량 관계를 정확히 타산하고 선후차를 가리며 중심 고리를 찾아 내여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장, 기업소 관리 운영의 기본 원칙이다. 그것은 기업소 앞에 제기되는 복잡하고 방대한 경제 과업들에 비하여 공장, 기업소의 자재, 자금, 설비, 로력은 항상 상대적으로 제한되여 있는 만큼 오직 이 원칙을 관철시킴으로써만 최소한의 력량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기본 건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일성 동지의 황철 교시는 비단 공장, 기업소의 생산 조직 사업에서 뿐만 아니라 인민 경제 전반에 대한 관리 운영 사업에서도 확고한 원칙으로 된다.

인민 경제 지도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의 하나는 생산 발전의 속도와 균형에 관한 문제이다.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는 합리적인 균형을 전제로 한다. 옳은 균형이 없이는 막대한 자재와 자금, 로력의 랑비를 가져 오게 될 것이며 일시적으로 어떤 부문에서 생산이 높은 속도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전반적인 경제 발전이 지연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경제 발전의 속도가 비상히 높을 때 균형성을 부단히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경제 발전의 속도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 가능성에 엄격히 립각하고 있을 때에는 결코 불균형을 조성하지 않습니다》(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 4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황철 교시는 바로 이 중요한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경제 발전의 균형을 상시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높은 속도를 보장케 하는 열쇠로 된다. 그것은 이 원칙에 기초함으로써만 현실적 가능성이 있고 력량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는 인민 경제 균형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황철 교시는 우리 인민 경제 발전의 매개 단계에서, 그리고 인민 경제의 모든 단위들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문제를 성과 있게 해결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부단히 촉진시키기 위한 확고한 지침으로 된다.

3

오늘 우리 당은 인민 경제 매개 부문에서 김 일성 동지의 황철 교시를 더욱 철저히 관철시킬 것을 계속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오늘 매개 공장, 기업소에서 관리 운영 사업의 수준을 한 계단 높이는 문제가 인민 경제 내부 예비를 성과 있게 동원하며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를 견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황철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력사적 교시가 있은 후 지난 3년 간에 우리 인민 경제는 훨씬 째워지고 부문 간, 부문 내 및 각 기업소의 생산 내부적 련계가 비할 바 없이 복잡해졌다.

우리 인민 경제 앞에는 1959년 당시보다 생산 조직 사업을 더욱 치밀하게 진행함으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 모든 문제

는 어떻게 기술 혁신을 더 전면적으로, 더 깊이 전개하는가에 따라 결정되게 되였으며 기술 관리를 잘 하고 현존 설비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사업을 면밀하게 조직하는 것이 경제 지도 일'군들의 주되는 과업으로 되고 있다.

인민 경제가 한 계단 더 높은 수준에 처하였으며 해결하여야 할 과업이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된 새로운 조건에서 황철 교시의 의의는 더욱 커지게 되였다. 오늘 인민 경제의 운전대에 앉아 있는 지도 일'군들이 사업의 선후차를 옳게 가리고 중심 고리를 정확히 찾아 내며 그에 적응하게 기동적으로 력량을 잘 조절하는 문제는 보다 어려운 것으로, 더욱 날카로운 것으로 제기되였다.

우리 당은 이미 금년도에 들어 서면서 새로운 환경에 맞게 공업 및 농업 부문에서 생산에 대한 관리 지도 체계를 우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개편하였으며 경제 조직 지도 수준을 한 계단 높이기 위한 혁명적 대책을 강구하였다.

《공장 관리 기구를 개편한 것도 생산 지도에 력량을 집중하고 생산을 보장하는 모든 부서들의 역할을 높임으로써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예비를 남김 없이 동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업이 더욱 발전된 현 단계에서 예비를 동원하는 중심 고리는 공장, 기업소들의 관리 운영 사업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김 일성, 《우리 나라의 현 정세와 인민 군대의 과업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대안 전기 공장에 대한 현지 지도에서 인민 경제 매개 부문, 매개 기업소에서 생산에 대한 지도, 특히 기술적 지도에 모든 력량을 집중하며 매 시기 생산 행정에서 걸리는 가장 절실한 문제, 중심적 환절을 제때에 찾아 내고 그를 집중적으로 풀어 나아갈 것을 중요하게 교시하였다. 이것은 자재, 설비, 설계 등 생산 조건의 준비를 결정적으로 선행시킴으로써 현존 설비, 로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기업소 관리 운영의 모든 측면에서 조직 사업 수준을 가일층 제고할 수 있게 한다.

대안 전기 공장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현지 교시는 1959년의 황해 제철소에서의 교시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기업소 관리 운영 사업에서 항상 력량을 정확히 타산하고 경중과 선후차를 가리며 가장 중심적인 문제부터 집중적으로 풂으로써 기업소의 전반적 사업을 능숙하게 이끌어 나갈 데 대한 정신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와 같이 대안 전기 공장에서의 현지 교시는 황철 교시의 기본 요구를 새로운 환경에서 더욱 철저히 관철시킬 수 있게 하였다.

사실 오늘 일부 기업소에서는 대안 전기 공장에 대한 지도 정신에 립각하여 관리 기구 체계는 개편하여 놓고도

그에 적응하게 생산 지도 사업을 개선하지 못하고 김 일성 동지의 황철 교시를 관철시키지 못한 결과 1959년 당시와 류사한 결함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존 생산 시설과 설비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일 데 대하여서는 적게 관심을 돌리고 잡다한 건설에 로력, 자재, 자금을 분산시키며,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고 파동성을 초래하는 것—이 모든 것은 지난 시기의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경제 지도에서 중심 고리 원칙을 위반하고 생산 조직 사업을 잘 하지 못한 데로부터 오는 결함이다.

최근 황해 제철소에 대한 현지 지도에서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하신 바와 같이 생산과 건설에서 선후차를 가려 내고 생산 조직 사업을 잘 하는 것은 6개 고지를 성과 있게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황철 교시를 철저히 관철시킴으로써만 새로운 관리 지도 체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휘시킬 수 있으며 인민 경제 모든 단위에서 조직 사업 수준을 한 계단 더 높일 수 있다.

사업에서의 선후차와 중심 고리는 개인의 총명만으로는 옳게 가려 낼 수 없으며 그의 해결 방도도 찾아 낼 수 없다.

청산리 방법 대로 생산 현장에, 대중 속에 들어 가서 모든 문제를 전면적으로 료해 분석하고 대중의 지혜를 집중시킴으로써만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조직 사업의 강화, 지도 방법의 개선은 모든 일'군들 속에서 자기 맡은 부문, 자기 맡은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내고야 마는 강한 기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군들이 하면 하고 말면 마는 식으로 문제를 대한다면 아무리 좋은 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새 체계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

모든 일'군들이 혁명가적 기풍을 확립하고 생산 조직 사업의 개선에 완강히 달라 붙을 때 황철 교시의 위대한 생활력은 우리의 현실에 더욱 활짝 꽃필 것이며 6개 고지 점령을 위한 최후 돌격전에서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될 것이다.

간부들의 정치 실무 수준 제고는 당 위원회들 앞에 제기된 긴절한 과업

고 정 수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 제 4차 대회에서 우리들이 하여야 할 방대한 혁명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현 시기 당 사업에서 가장 절실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간부 대렬을 계속 튼튼히 꾸리며 그들의 지도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당 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지난 1년간, 특히는 당 중앙 위원회 제 4기 제 2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에서 거듭 전당이 학습할 데 대한 구체적인 방도가 제시된 후 간부들의 정치 실무 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있었다.

각급 당 조직들과 기관, 그리고 모든 부문들에서는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지침으로 구체적이며 대담한 조치들이 취해졌고 각종 학습 체계들이 확립되였으며 학습 열의는 비상히 제고되였다.

그러나 간부들의 정치 실무 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은 아직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금년도 6개 고지 점령을 위한 상반년도 총화에서 명백해진 바와 같이 일부 기관, 기업소들에서 산생된 결함들의 주요 원인은 바로 간부들의 수준 문제와 관련되여 있다. 일부 공장, 기업소 지도 일'군들이 당 정책, 특히는 청산리 정신과 대안 전기 공장 교시의 진수를 파악하지 못한 데로부터 사업에서 중심 고리를 찾지 못하고 일을 벌려만 놓거나 의연히 낡은 사업 방법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들이 바로 이것을 실증하여 준다.

당이 간부들의 수준 제고 문제를 그렇게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리유는 단순히 그들의 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급속히 발전하는 우리 혁명의 절실한 요구에 맞게 간부들의 지도 수준을 따라 세우며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서 당면하게 걸리고 있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경제 건설 과업이 련이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 고도로 발전된 현대적 기술로 장비되고 있는 실정에서 경제 사업을 성과 있게 지도한다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문에 걸쳐 당의 정책이 정확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이 명백히 제시되여 있으며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가 비상히 앙양되고 있는 조건에서 문제는 간부들의 혁명가적 사업 기풍과 정치 실무 수준 여하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만일 우리의 모든 당 및 국가, 경제 기관 지도 일'군들이 당 정책으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경제 지식과 과학 기술을 체득할 뿐만 아니라 청산리 방법과 대안리 체계를 튼튼히 틀어 쥐고 당이 하라는 대로 사업할 줄 아는 지식 있고 능력 있는 조직자로 자라난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요새도 점령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은 현 시기 간부들의 정치 실무 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을 제 1차적인 혁명 과업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한 예비를 찾고 있다.

* *

정치 실무 수준 제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간부들이 당 정책과 맑스-레닌주의로 튼튼히 무장하는 것이다.

우리 당의 정책은 조선 혁명의 구체적 실천과 결부된 맑스-레닌주의이며 우리의 모든 행동의 지침이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일'군들이 당 정책만 잘 알면 자신 있게 모든 문제를 분석할 수 있으며 군중을 옳게 이끌 수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이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모든 현상을 다 이 자를 가지고 잴 수 있습니다》(《강서군당 사업 지도에서 얻은 교훈에 대하여》)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러므로 당의 로선과 정책,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심오하게 연구 파악하는 것은 간부들의 가장 영예롭고 첫째 가는 전투적 과업으로 되며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임무는 없다.

우리의 모든 간부들이 당 정책의 매 구절마다에 담겨져 있는 심오한 사상과 풍부한 내용을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거울로 하여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하며 총화하는 습성을 배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부들의 정치 실무 수준 제고의 기본이며 사업 성과의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오늘 우리의 일부 간부들이 주관주의적으로 사업하며 제기된 문제들을 실속 있게 해결하지 못하고 난관 앞에서 동요하는 것과 같은 일련의 결함들은 당 정책 연구를 형식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그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데 기인된다.

당 정책의 본질을 깊이 파악함이 없이는 례컨대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의 결부 문제, 전투 계획의 정확한 작성 문제, 당 정책과 지시를 관철하는 투쟁에 있어서의 방향과 집행 정형에 대한 장악 문제 등 일련의 문제들을 옳게 해결할 수 없으며 결국 군중을 혁명 과업 실천에로 성과 있게 조직 동원할 수 없다.

붉은 편지에 지적된 바와 같이 《간부들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일'군들이 우리 당 정책을 잘 알고 그 원칙에서 현실 문제를 옳게 분석하고 혁명 과업을 능숙하게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 간부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하는 것은 그들의 수준 제고에서 가장 중심적 문제로 제기된다.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깊이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구체적인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주는 맑스-레닌주의 원리를 깊이 연구하여 그의 본질을 철저히 체득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 원리를 습득함으로써만 우리는 당 정책의 본질과 그의 정당성, 그리고 령도의 현명성을 더욱 깊이 파악할 수 있으며 당이 제기한 혁명 과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확신성을 가지고 능숙하게 사업해 나갈 수 있다.

간부들의 지도 수준과 실무 능력을 높임에 있어서 또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경제 기술 지식을 습득하며 자기 사업에 정통하는 문제이다.

간부들의 지도 수준이란 그들의 정치적 수준과 실무 수준을 말하는 것이며, 이 두 측면은 호상 밀접히 결부된 것으로서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김 일성 동지는 조선 로동당 제 4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 간부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당 정책을 깊이 연구 체득하는 동시에 《특히 현 시기 우리의 중요한 혁명 과업인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관한 과학적 지식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간부들이 경제 기술 지식으로 무장하고 자기 사업에 정통하는 것—이것은 우리의 인민 경제를 빠른 속도로 전진시킴에 있어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문제이며 실지 현실적으로 걸리고 있는 절박한 문제이다.

특히 우리 나라 공업과 농촌 경리에서는 새로운 지도 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생산력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광활한 길이 열려졌다.

이러한 새로운 지도 체계는 오직 간부들이 그에 적응한 구체적인 경제 기술적 지도를 줄 때야만 자기의 생활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오직 간부들은 당 정책과 함께 사회주의 경리 운영에 관한 경제 기술 지식을 소유하고 자기 사업에 정통함으로써만 경제에 대한 옳은 지도와 당 정책의 정확한 관철을 보장할 수 있으며 당이 요구하는 천리마 시대의 지휘관으로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간부들 속에서는 경제 기술 지식에 대한 학습을 게을리 하며 허심하게 배우려는 꾸준한 노력이 부족하다.

경제 기술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자연 및 기술 과학의 기초로부터 현대 공학과 농학이 달성한 최신 성과들을 소유하여야 하며 특히 자기 맡은 전문 부문의 경제 기술 지식에 정통하여야 한다.

간부들의 정치 실무 수준 제고에서 또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실지 사업을 통하여 그들의 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문제이다.

간부들은 학습을 통하여 당 정책과 맑스-레닌주의 원리,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관한 지식을 꾸준히 연구 체득하는 동시에 실천 활동을 통하여 부단히 배우면서 자기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의 실천 활동이란 곧 당 정책을 관철하는 투쟁이며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문의 실지 사업에 정통하고 능수가 되는 것은 실천 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배운 지식도 이 과정에서 검증되며 공고화된다.

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을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 방법인 청산리 방법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이다.

더우기 오랜 경험을 가진 일부 간부들이 경험주의와 보수주의, 그리고 낡은 사업 방법에서 완전히 벗어 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 자라난 간부들이 아직 실천적 경험이 어린 조건 하에서 아래에 내려 가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배우지 않고서는 사업에서 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아래에 내려 가 배움에 있어서는 생산 현장과 생산자 대중의 생활과 사업을 옳게 료해할 수 있도록 현실에 깊이 침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부들은 군중 속에 깊이 들어 가서 세밀하게 료해하고 구체적으로 연구하며 과학적으로 분석한 기초 우에서 군중에 의거하여 사업을 조직하고 분공하며 그들을 발동시키는 실지 사업 과정을 통하여 조직자적 수완과 지도 능력을 높일 수 있다. 동시에 이 과정을 통하여 군중 속에서 배우며 군중에 의거하는 혁명적 사업 방법과 나아가서는 로동 계급의 조직성과 혁명성을 깊이 체득할 수 있다.

실지 사업을 통하여 지도 수준을 높이자면 혁명가적 기질과 품성을 배양하여야 한다.

혁명가적 기풍을 확립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많은 지식과 능력을 소유한 일'군일지라도 모든 문제를 대담하게 실천에 옮기지 못할 것이며 난관 앞에서 동요하거나 주저 앉아 결국 당 정책을 관철해 내지 못할 것이다.

혁명가적 기풍을 확립하자면 당 정책 관철을 위한 불요불굴의 혁명 정신을 소유하고 현실에 접근하여 군중 속에 들어 가야 하며 모든 일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해야 하며 사업 과정에서 곤난을 예견하고 그를 극복할 줄 알아야 하며 항상 자기 사업을 총화할 줄 알아야 한다.

혁명가적 기풍을 소유함으로써만 현실 속에서 경험을 일반화하고 과단성 있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으며 능숙하게 배운 지식을 구체화하며 일을 솜씨 있게 빈틈 없이 재낄 수 있다.

혁명가적 기풍과 함께 동지들의 귀중한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허심하게 받아 들이며 남의 쓰라린 경험에서 교훈을 찾아 자신의 혁명가적 수양을 쌓는 것은 수준 제고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부들의 실무 수준 제고의 기본 내용은 당 정책으로 무장하고 경제 기술 지식을 습득하며 실지 사업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을 잘 하여야만 간부들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으며 당면한 혁명 과업을 옳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

* *

당 중앙 위원회와 김 일성 동지는 현 시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과 당 사업에서 절박한 요구로 제기된 간부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급속히 제고하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계속 깊은 배려를 돌리고 있다.

특히 년초에 있은 황해남도 당 조직들에 대한 현지 지도와 최근에 진행된 창성, 삭주군에 대한 견학과 창성 련석회의 그리고 황해 제철소에 대한 현지 지도는 당면한 여섯 개 고지의 점령과 나아가서 7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거대한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시종일관 간부들을 배워 주며 실지 사업을 통하여 그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일층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우리들은 현 시기 당 사업에서 초미의 문제로 제기된 간부들의 지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당이 얼마나 크나큰 배려를 돌리고 있으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가에 대하여 깊이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이악하게 달라 붙어 조직 진행하여 최근 년간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당 조직들은 계속 간부 대렬을 꾸리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들의 수준을 제고하는 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하며 간부들의 지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과업을 해결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간부들의 정치 실무 수준 문제를 최근 년간에 반드시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사상적 준비를 철저히 갖추는 문제이다.

아직도 우리의 일부 기관, 기업소 간부들 속에서는 경제 과업이 크게 버려질 때면 이 문제를 차요시하며 지어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오늘 못하면 래일 하자는 식으로 대하는 그릇된 관점과 태도들이 지속되고 있다.

물론 수준 문제는 일조 일석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오늘의 현실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이 문제를 하루 속히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는 혁명 투쟁의 가렬한 환경 속

에서도 정치 실무 수준 문제를 전투적으로 해결한 항일 빨찌산들의 슬기로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항일 빨찌산들은 어떠한 정황 속에서도 수준 제고 문제를 망각하거나 차요시하지 않았으며 곤난과 애로를 극복해가면서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을 리용하여 자각적으로 인내성 있게 자기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들은 유격 근거지에서나 행군할 때나 지어는 치렬한 전투의 쉴참에도 학습은 멈추지 않았다.

마당거우 밀영지에서 김 일성 동지가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 가는 의무》라고 하신 감명 깊은 말씀은 오늘 사회주의 건설의 전투적 마당에 나선 우리들에게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지침으로 된다.

당 조직들은 간부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제고하는 사업을 제 일차적인 숭고한 혁명 과업으로 내세우고 학습을 생활화하며 이 문제 해결을 통하여 제기된 혁명 과업을 풀어 나가며 수준 문제에 대한 일체 사상적 편향성, 특히 신비성, 자만성, 그리고 그를 차요시하는 경향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여야 한다.

간부들이 정치 실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것은 당 규약상 의무이다.

오직 당 생활을 강화함으로써만 당 규약상 의무 수행의 중요 내용으로 되는 수준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당 조직들은 간부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급속히 제고시키기 위하여 통신 교육, 자습, 간부 학습반 및 상학조 운영 체계를 정연히 확립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상설 교육 기관을 확장하고 일하면서 배우는 체계를 확립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당 조직들은 상설 교육 기관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고 그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재직 간부들의 통신 등교 수업에 대한 조건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간부들의 정치 실무 수준 제고 문제는 대학 과정을 통하여서만 아니라 간부 학습반과 간부 상학조를 통하여 해결되여야 한다.

당 조직들은 우선 간부들의 자습반 체계를 더욱 확립하고 그의 운영을 개선함으로써 학습에서 교조주의, 형식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현실적 문제를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결부시켜 주체성 있게 학습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당적 관심을 돌려야 한다.

동시에 간부 상학조를 잘 운영하여야 한다. 간부 상학조는 일하면서 배우는 학습 체계로서 군대의 지휘관 상학조와 같이 모든 단위, 모든 기관들에서 운영함으로써 책임 일'군들로 하여금 자기 사업에 정통케 하는 동시에 하부 일'군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현저히 제고할 수 있게 한다.

그 내용에 있어서 당 일'군들은 당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함께 해당한 경제 기술적 문제를 배우며 행정 경제 일'군들은 행정 및 경제 기술적 문제와 함께 혁명 리론과 정치 문제를, 필수적이며 초보적인 문제로부터 점차 심오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학습한다.

당의 의도 대로 이와 같이 간부 상학조 체계를 확립하고 이악하게 달라 붙어 경상적으로 운영한다면 최근 수년간에 간부들의 수준을 현저히 제고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정치 실무 수준을 제고함에 있어서 간부 자습반과 상학조 형태 뿐만 아니라 재직 간부들의 하나의 훈련 과정으로서의 강습과 하부 지도 사업, 실물 교육을 주는 현지 견학, 그리고 개별 교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와 방법을 잘 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 조직들은 이러한 일련의 중요한 문제들을 틀어 쥐고 그의 체계를 세우며 이것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끝으로 간부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대한 당 조직들의 지도 통제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간부들의 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또한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항상 배우고 배워 주어야 한다는 당의 의도를 관철하자면 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을 단순한 구호나 만세를 부르는 것으로써는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구체적인 조직 사업을 전개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부단히 강화하여야 한다.

당적 지도와 통제에서 중요한 것은 수준 제고를 위한 중심 방향을 옳게 설정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 방조하여 주며, 수준 제고 정형을 일상적으로 장악 지도하는 데 있다.

당 조직들은 일'군들의 정치 실무 수준 제고 문제를 당 위원회의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 계획적으로 추진시켜야 한다.

중심 방향과 계획이 옳게 수립된 다음에는 수준 제고를 위한 제반 사업들에 대한 사전 준비를 충분히 잘 하도록 세심한 당적 관심을 돌려야 한다.

특히 책임 일'군들에게 있어서는 간부들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짜고 들어서 자신이 직접 배워 주며 학습 조건을 보장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치 실무 수준 문제에 대한 당적 지도 통제에서 주요한 것은 그에 대한 정상적인 총화 사업이다.

대학 과정이나 간부 상학조나 할 것 없이 수준 제고 정형에 대한 정상적인 총화를 진행함으로써만 우결함을 찾고 결함을 극복하며 경험을 축적하면서 그에 대한 옳은 평가와 지도를 줄 수 있다.

총화는 반드시 구체적이고도 심중하게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당 조직들에서는 누가 당 정책과 현지 교시를 잘 연구하는가, 누가 청산리 방법 대로 하부에 침투하는가를 일일이 파악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지도 수준 문제를 가지고 일'군들을 평가할 줄 알아야 하며 걸리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당 조직들은 일'군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제고하는 사업을 자체의 중요한 혁명 과업으로 인식하고 구체적인 조직 지도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당이 제시한 방대한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기술 혁신은 짜고 들어 추진시켜야 한다

리 홍 균

당은 7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 나라 철광업에서 굴지의 기업소인 무산 광산을 현대적인 대규모 광산으로 개건 확장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무산 광산은 7개년 계획 기간에 300만 톤의 정광 생산 능력을 가진 대규모 광산으로 전변되게 된다.

이것은 1967년에 가서 무산 광산이 5개년 계획 기간에 생산한 총량에 해당하는 철광석을 1년 간에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제가 1944년 1년 간에 생산하던 량을 단 70일 간에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이 광산 앞에 제기한 7개년 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모든 작업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결정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 운동을 전면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이미 기술 혁신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7개년 계획은 우리 나라에서의 전면적 기술 혁명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민 경제의 어느 부문도 새 기술을 도입하지 않고는 더 전진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나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기계이며 새로운 기술입니다》(조선 인민의 민족적 명절 8.15 해방 15주년 경축 대회에서 한 보고).

무산 광산은 우리 당의 정확한 시책에 의하여 최신식 대형 굴착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각종 채광, 선광 설비로써 장비되여 있으며 채광 작업으로부터 정광을 상차하는 작업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이 기계화되였고 일부 공정은 자동화되여 있다. 그리하여 전체 종업원의 95% 이상이 기계화 및 자동화된 현대적 설비로써 흥겹게 일하고 있다.

그러나 11억 톤 이상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철광석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며 대규모적인 로천 채굴을 할 수 있는 우리 광산에서 기술 혁신을 더욱 인내성 있게 추진시킨다면 생산을 증대시키며 로동 생산 능률을 급속히 올릴 수 있는 허다한 예비가 있다.

광업 부문에서 하나의 철칙으로 되는 굴진을 선행시키는 당의 방침을 계속 관철시키기 위하여서도, 해마다 130%로 장성되는 락광량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도, 선광 부문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도 기술 혁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술 혁신은 오늘 가장 중요한 증산 예비이며, 오직 기술 혁신을 통하여서만 7개년 계획도, 6개 고지 점령을 위한 금년도 계획도 수행할 수 있다.

* *

지난 기간 무산 광산에서는 당이 제시한 웅대한 전망 과업에 고무된 근로자들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기술 혁신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1960년 8월 당 중앙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 이후에만도 무충진 발파법을 비롯하여 공기 충진기에 의한 충진 및 착암 굴진 작업의 기계화의 도입, 엷따기 발파법의 도입, 새 쩌크론 연구의 성공, 마광기에 새 수지 합판 메달의 도입, 그리고 꼼베야 계통의 자동화 등 수많은 기술 혁신 안들을 생산에 도입하여 수천 수백 공수의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무충진 발파법은 종전에 90센치메터의 좁은 단면적의 갱도에서 충진하던 고된 로동을 퇴치하고 발파 준비 시간을 1회 발파에서 1~1.5일 단축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천 공수의 로력을 절약케 하였다.

지난 해 우리 당 제 4차 대회 전야에 무충진 발파를 도입하여 1회 발파에서 무려 135만 톤의 락광을 보장한 이 한가지 사실만 하여도 기술 혁신이 얼마나 중요하며 새 기술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가를 실증해 주고 있다.

지난 기간 기술 혁신을 지도함에 있어서 무산 광산 당 위원회가 얻은 가장 중요한 경험은 기술 혁신을 장애하는 보수주의, 소극성, 기술 신비주의를 극복하는 투쟁에서나 대중의 앙양된 열의를 기술 혁신에 조직 동원하는 사업에서나 항상 모든 사업을 짜고 들어 인내성 있게 꾸준히 조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 혁신은 일반적 호소나 강조만으로써는 추진시킬 수 없으며 더우기 자연발생성에 방임하여서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그것은 의식적인 투쟁을 통하여서만, 수많은 대중의 창조적 지혜를 목적 지향성 있게 조직 동원하기 위한 꾸준한 조직 사업을 통하여서만 옳게 진행될 수 있으며 부단히 전진할 수 있다.

무산 광산 당 위원회는 기술 혁신을 장애하는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며 기술 혁신 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사업에 가장 선차적 주목을 돌렸다.

새 기술 혁신 안이 제기되면 그것은 크건 작건 간에 낡은 사상의 장애와 부닥치게 된다.

처음 무충진 발파법과 같은 새로운 혁신 안이 나왔을 때 일부 일'군들 속에서는 《그것은 책에도 씌여 있지 않는 리론이다》, 《공연히 로력만 허비한다》는 등으로 그의 도입에 선뜻 나서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런 제안이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장애를 조성하는 현상까지 있었다. 이것은 일부 일'군들의 보수주의, 신비주의가 기술 혁신을 얼마나 장애하는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실례이다.

우리는 이러한 낡은 사상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기술 혁신을 전개할 수 없다는 데로부터 우선 지도 일'군들 속에 남아 있는 보수주의, 소극성을 청산하기 위한 강한 사상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모든 선전 선동 수단을 동원하여 대중 속에서의 정치 사업을 진행하였다.

당 위원회는 매개 부문별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을 가지고 강연 제강을 준비하고 책임 간부들로 하여금 직접 근로자들 속에 들어 가 해설 선전 사업을 하는 한편 무엇을 어떻게 해결하겠는가에 대한 협의회를 수시로 조직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긍정적 의견들이 제기되고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우리의 경험은 기술 혁신에 대한 근로자들의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선전 수단을 통한 교양과 배합하여 실물 교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는 채광, 선광 부문별 《공구 전람회》를 통하여 걸렸던 공구, 지구, 부속품 등을 해결하는 데 대중의 관심을 제고하였고 부문별 《자력 갱생 전람회》를 통하여 걸린 기술적 문제들을 능히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신심으로 대중을 교양하였다. 또한 전 광산적인 《창의 고안, 발명, 합리화 방안 전람회》를 통하여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타파하는 데 대중을 궐기시켰다.

각종 전람회들이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었는가 하는 것은 《공구 전람회》 이후 잠재하였던 200 여종의 공구가 탐구 동원되였으며 그를 모체로 공구 지구 작업반까지 꾸리고 걸렸던 자동차 부속품 문제를 완전히 풀 수 있었다는 데서도 표현되였다.

기술 혁신은 사상 동원 사업과 함께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조직하는 사업이 안받침되여야만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기술 혁신을 위한 조직 사업에는 많은 측면들이 있지만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기술 발전 계획을 정확히 작성하여 기술 혁신에서 로동자들과 기술자

들 간의 협조를 옳게 조직하며, 기술 혁신 과정에 대한 물질적 보장 사업을 잘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선 기술 발전 계획을 실정에 맞게 짜야 한다.

기술 발전 계획은 기술 혁신이 가장 약한 고리를 추켜 세우며 걸린 문제를 푸는 데 집중되도록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그것은 생산 계획과 밀접히 결부되여야 하며 대중의 광범한 지혜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여야 한다.

광산 당 위원회는 기술 혁신을 깜빠니야 식으로가 아니라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통하여 생산 계획 수행을 확고히 보장하도록 하며 이 운동을 목적 지향성 있게 끌고 나가기 위하여 될수록 구체적으로 기술 발전 계획을 짜는 데 중요한 주목을 돌렸다.

당 위원회는 우선 부문별 기술 혁신 방향을 명백히 제시하고 그에 근거하여 매개 부문의 당 조직들과 기술 집단으로 하여금 광범한 근로자들의 지혜에 의거하여 잠재한 온갖 예비를 탐구 동원하는 방향에서 계획을 짜고 다시 로동자들의 토의에 붙여서 부문별 기술 발전 계획을 완성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광범한 로동자들의 협의를 거친 부문별 기술 혁신 계획에 기초하여 기술부가 기술 핵심들을 조직 동원하여 기술 경제적 효과성과 그의 실현 가능성, 집행의 선후차를 타산하여 기업소적인 기술 발전 계획을 수립하며 한편 매개 직장, 작업반에서는 부문별 계획 작성 도상에서 제기된 창발적 의견들을 종합하여 합리화 집행 계획을 작성한다.

기술 발전 계획의 정확한 작성은 기술자들과 전체 로동자들에게 기술 혁신의 명백한 목표를 주며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신심을 갖고 이 운동에 적극 참가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기술 발전 계획을 옳게 짠 기초 우에서 일'군들을 그 수행에 조직 동원하며 특히 로동자와 기술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는 데 심중한 당적 주목을 돌렸다.

우리 광산에서 종업원 매 20명에 한 명씩 해당하는 기사, 기수들의 역할을 높이며 그들의 힘과 로동자들의 힘을 창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은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기술에 대한 리론적 지식은 있으나 실지 생산에서 걸리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잘 모르는 기술자들과 매개 기계의 움직임에 대하여서는 손'금 보듯 환히 꿰뚫고 있으나 반면에 기술에 대하여 리론적으로는 잘 모르는 로동자들 간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한다면 즉 광범한 대중의 지혜를 하나의 목적에로 집중한다면 해결 못 할 기술 문제란 있을 수 없다.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는 사업도 의식적으로 조직되여야만 보장될 수 있다. 즉 여기에서도 구체적인 조직 사업이 필요하다.

우리는 실천 그루빠, 기술 혁신 그루빠의 사업을 통하여 이 문제를 실현하는 경험을 체득하였다.

실천 그루빠는 이미 완성된 기술 혁신 안을 실지 도입 일반화하는 데 그 사명이 있으며 기술 혁신 그루빠는 기업소에서 가장 초미의 문제로 나선 기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그 중요한 사명이 있다.

그것들의 사명은 일정하게 다르지만 거기에는 다 같이 기술자들과 기능공 로동자들이 배합되여 망라되고 있다.

이들은 다 같이 하나의 구체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머리를 쓰며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애로들과 난관들을 합심하여 뚫고 나간다.

이 과정을 통하여 로동자들이 다년간 실천을 통하여 쌓은 풍부한 경험과 과학 기술자들의 지식이 결합되며 로동자들은 새 기술을 배우고 기술자들은 로동 계급의 혁명적 정열을 배운다.

로동자-기술자들 간의 창조적 합작은 거대한 성과를 낳았으며 허다한 난문제들을 풀었다.

례컨대 우리 광산에서 콩크랏샤의 리용률 제고를 위한 투쟁이 이것을 잘 보여 준다.

우리 광산의 선광에서 중요한 공정인 콩크랏샤의 정시 가동과 리용률 제고 여부는 정광 생산의 량과 그 품위를 좌우하는 문제다.

그런데 콩크랏샤는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고장과 돌발 사고가 빈번했었다.

최근 시기까지만 해도 일부 일'군들은 콩크랏샤의 리용률이 낮은 것을 불가피한 것으로만 생각하여 왔었다.

당 위원회는 신비성을 깨뜨리기 위한 사상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10 여명의 전문 기술자와 기능공, 설계원들을 배속시켜 기술 혁신 그루빠를 조직하고 이 문제 해결에 달라 붙게 하였다.

이 그루빠는 도면과 기계 상태를 일일이 대조해 가면서 모순을 발견하고 종전의 세 가지 설계 대신에 새로 단일 설계를 작성하였으며 10 여개의 중요 부속품과 부분품을 성능이 좋은 새 것으로 교체하였다. 결과 종전까지는 7대의 콩크랏샤를 가지고도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2대의 예비를 조성하고 정상 보수를 진행하면서 정광 생산을 훌륭히 보장할 수 있게 되였다.

당 위원회는 여기에서 얻은 교훈으로부터 이 기술 그루빠를 두 개 조로 나누어 다른 공정들인 롯도밀과 쟈렛토크랏샤 등에서 걸렸던 문제도 훌륭히 해결하였다.

새로운 기술을 창안 도입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사업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기술 혁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해 주는 것이다.

아무리 새로운 가치 있는 기술 혁신 안이 성공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실지 도입되고 일반화되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로 되고 말 것이다. 로동자, 기술자들 속에서 나온 발기가 비록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 대로 자라도록 적극 지지하고 온갖 조건을 보장해 준다면 그것은 점점 더 가치 있고 위력 있는 것으로 발전되는 것이다.

당 위원회는 새로운 혁신 안이 제기되면 그것을 적극 지지 장려하는 한편 그것이 최단 시간 내에 실지 물질적 결과로 전환되도록 모든 조건을 보장하는 데 심중한 주의를 돌렸다.

우리는 설계, 공무 동력 부문을 비롯한 해당 전문 일'군들로 《보장조》를 구성하고 새로운 창안이 제기되면 그것을 집체적으로 완성시켜 주며 그의 연구와 시험 및 실지 도입, 일반화에 필요한 설계, 자재, 공구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도록 하였다.

《보장조》의 조직 운영은 반도체 정류기의 연구 사업, 철물 탐지기의 제작 등과 같은 일련의 기술 혁신을 추진시키는 실천 과정에서 그것이 긍정적인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앙양된 대중의 열의를 계속 견지하며 그것이 물질적 결과로 전변되도록 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다.

＊ ＊

우리가 기술 혁신에서 달성한 성과와 경험은 극히 초보적인 것이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할 일이 많다.

아직도 해결하여야 할 허다한 기술적 문제들이 있으며 광산의 전체 공정을 한 계단 더 높은 기술 수준에 올려 세워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우리가 쉬임 없이 기술 혁신을 추진시킨다면 무산 광산은 더욱 현대적이고 발전된 기업소로 될 것이다.

금년도 6개 고지 점령, 특히 120만 톤 강철 고지 점령의 첫 공정을 담당한 무산 광산이 일을 잘 해야 다른 모든 고리도 잘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한 우리 광산 전체 지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더욱더 기술 혁신 운동을 촉진함으로써 인민 경제 각 부문의 기대에 보답하겠다는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광산 당 위원회는 기술 일'군 대렬을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광범한 근로자들을 망라시켜 기술 혁신 운동을 짜고 들어 추진시킴으로써 금년도 우리 광산 앞에 부과된 정광 생산 계획을 어김 없이 보장할 것이다.

실존주의의 반동성과 그것이 남조선 사상계에 미치는 해독적 작용

김 철 희

실존주의는 현 시기 제국주의의 반공산주의 선전에서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것은 최근 년간 많은 자본주의 나라들에 급격히 전파되였으며 도처에서 맑스-레닌주의를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적 도구로 광범히 리용되고 있다.

오늘 그것은 남조선에서도 가장 많이 류포되고 있는 부르죠아 철학으로서 미제의 식민지 정책의 적극적인 옹호자로 나서고 있다.

그런만큼 현 시기 실존주의의 반동성과 그의 사상적 본질을 폭로 비판하는 것은 미제를 괴수로 한 국제 반동과의 사상 투쟁을 강화하며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침략 사상과 투쟁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실존주의는 제 1차 세계 대전 후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와 함께 발생한 이래 전 과정을 통하여 멸망에 직면한 가장 반동적인 계층의 사상적 무기로 되였고 언제나 맑스주의를 《공격》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삼아 왔다.

실존주의가 독일에서 파씨스트 독재를 사상적으로 준비하는 악질적인 철학적 고무자로, 히틀러와 뭇쏘리니의 《정치 철학》의 기초로 된 것은 주지하는 바다.

실존주의는 제 2차 세계 전쟁 이후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가일층의 심각화와 함께 서부 독일과 불란서에서는 물론 많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전염병처럼 만연되였다.

실존주의를 길러 낸 환경은 제국주의이며 그 정신적 량식은 부패 타락한 부르죠아 사상이다.

실존주의에서 근본적이며 중심적인 개념은 《실존》(《존재》)이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존재》는 물질적인 객관적 존재인 것이 아니라 죽어 감을 의식하는 인간적 존재이며 따라서 그것은 주관적 체험과 결부되여서만 있을 수 있다. 이리하여 그들은 현대 제국주의 부르죠아 철학에 특징적인 극단한 주관 관념론을 로골적으로 설교하고 있다.

그들은 철학의 연구 목적이 인간적 자의식의 미지의 본질로 침투하는 것에 있다고 하면서 론의의 초점을 《인생의 가치, 의미》에 두고 있으며 이것을 철학의 기본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문제들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진의도는 사람들의 모든 주목을 사회적 진보와 혁명적 변혁을 위한 투쟁으로부터 딴데로 즉 인간의 내면 세계에 돌림으로써 근로자들의 투쟁을 마비시키려는 데 있다.

그들은 근로자들 속에서 비관주의와 염세주의, 정신적 허무주의와 타락을 부식시키기 위하여 철학의 중심 제마를 죽음과 절망, 불안과 공포, 허무와 고독 등에 두고 있다. 특히 그들은 죽음의 문제에 주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독일 실존주의의 두목이며 악질적인 반동 분자인 야스퍼스는 《철학을 한다는 것—이것은 죽는 것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고까지 지껄였다.

실존주의가 《죽음의 철학》, 《절망의 철학》, 《불안의 철학》이라고 불리여지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실존주의의 중요한 특징은 인간 리성과 사회 발전의 객관적 법칙을 부인함으로써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 리론, 과학적 공산주의 사상을 반대하는 데 있다.

* *

남조선에서 실존주의는 특히 정전 후에 급속히 전파되였다. 오늘 남조선 출판물들에는 다른 모든 부르죠아 철학들 중에서 실존주의에 관한 통속화된 잡문이 절대적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

남조선 부르죠아 철학자들은 현대 철학 조류들을 렬거하는 경우에 흔히 실존주의를 맨 첫 자리에 놓고 있으며 그것을 《현대 사상의 가장 깊고 진실한 대표적 형태》로 광고하고 있다.

실존주의의 사상적 독소는 비단 철학계만이 아니라 종교, 력사, 법학 특히 문학 예술 등 남조선 사상 생활의 모든 령역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 잡지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실존주의 사상이 특히 많이 류행되였다. 숫하게 지나 간 외래의 사상 개념 중에서 실존처럼 열광적으로 입에 오른 것은 별로 없다》.

절망과 비관의 철학인 실존주의가 남조선에서 제일 많이 류포되게 된 것은 일정한 근원을 가지고 있다. 이 근원은 간단히 말하면 미제의 식민지 통치와 이로 인하여 초래된 남조선 사회의 모순의 격화, 정치적 부패와 경제적 파탄, 특히 정신적 타락과 퇴폐에 있다.

남조선에서의 실존주의의 계급적 지반은 지주, 예속 자본가 그리고 기타 반동 계층들이다. 그들은 국제적 범위에서 사회주의 력량이 부단히 장성하고 공화국 북반부가 날로 륭성 발전하는 현실 앞에서, 더욱더 심각화되는 남조선 사회의 위기와 자신들의 불가피한 멸망 앞에서 야기되는 불안과 공포의 기분을 바로 이 철학에서 반영시키고 있다.

실존주의는 비단 반동 계층 뿐만 아니라 일부 깨닫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는 계층들 속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방 전에는 장기간에 걸친 일제의 파쑈적 억압 하에 놓여 있었고 해방 후에는 미제의 식민지 통치로 하여 온갖 악과 비도덕의 집결처로 된 남조선의 비참한 사회적 환경은 적지 않은 인테리들로 하여금 실존주의에 공감하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일부 인테리들은 모순의 극치에 달한 남조선의 사회 환경에서 진정한 생활의 출로를 찾지 못하고 모순에 빠져 전형적인 비관주의와 염세주의를 설교하는 실존주의에서 정신적 《위안》을 찾는 데로 나가게 되였다.

특히 지적하여야 할 것은 남조선에서의 실존주의의 류행이 주요하게는 미제의 식민지 정책, 그들의 반동적 사상, 문화 정책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지난 세기 후반기부터 각종 형태로 침략을 위한 사상적 지반을 계획적으로 닦아 온 미제는 해방 직후부터 남조선에 대한 반동적 사상 공세를 더 한층 강화하였다. 미제는 맑스주의 철학을 비롯한 모든 건전하고 진보적인 사상에 대한 탄압을 감행하는 한편 어용 문화 단체들을 다량적으로 조직하고 맑스-레닌주의에 반대되는 사상이라면 어떤 것을 불문하고 모조리 남조선에 류포시켰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될수록 각이한 층의 인테리들과 광범한 청년 학생들을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에 얽매여 두기 위하여 실존주의를 비롯한 실용주의, 신실증주의, 신토마스주의 등 여러 가지 부르죠아 철학을 류포시키면서도 남조선 환경에서는 실존주의를 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여기고 있다.

이리하여 오늘 남조선 출판물들 중에는 실존주의에 관한 글들의 수효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그것은 남조선 사상계에 더욱 큰 해독적 작용을 미치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실존주의를 류포시킴으로써 절망과 불안, 위협과 공포의 원인은 사회 제도, 물질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 《존재》 자체에 고유한 것이라고 설교하고 있으며 남조선에서의 모든 모순의 근원을 은폐

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미제는 자기들의 식민지 정책이 빚어 낸 모든 사회악과 빈궁, 무권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론증》하며 인민들의 모든 투쟁이 불필요한듯이 설교하고 있다.

실존주의는 남조선에 류포되던 첫날부터 파쑈 독재의 철학적 영양소로 되였으며 오늘에도 그렇게 되고 있다.

실존주의의 신봉자들은 사람들 속에 염세주의와 비관주의를 류포시킴으로써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 의욕을 마비시키고 있다.

남조선의 실존주의 신봉자들은 로골적으로 권력 의지의 리론, 폭압 정치의 합리화, 리성에 대한 부정 등 과거 니이체가 히틀러에게 제공하였던 독일 파씨스트의 《정치 철학》을 공공연히 되풀이하고 있다.

그들이 미제의 식민지 억압과 군사 파쑈 테로 통치를 어떻게 《합리화》하려는가 하는 것은 그들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알 수 있다.

《지배하려는 권력욕이 있다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오히려 지배하려는 데 필요하고 편리하도록 볼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여하튼 정의라든가 본질적인 것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은 절대적이 아니고 단지 인간 의식이 현실 내부로부터 긁어 잘라낸 상대적 쪼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현실 세계란 본질에 있어서 비리성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다.

남조선 잡지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실존 철학은… 인간의 리성이 뽐내는 꼴을 사납고도 세차게 공박한다. 즉 현실 세계는 리성의 힘으로써는 똑똑하게 속을 들여다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은 어둡고 캄캄하여 음울한 느낌을 주어 그 밑바닥에는 악마라도 숨어 있을 것 같은 심연으로 여겨진다》.

그들은 비합리주의를 주장하고 인간의 리성적인 론리적 인식의 가능성과 과학적 인식의 가능성을 반대함으로써 사회주의 승리의 필연성을 거부하며 행복한 미래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반대하고 있다.

실존주의는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철저한 부르죠아적 개인 리기주의를 부식시키는 철학적 지반을 닦아 놓고 있다.

그들은 사람들이 사회 생활에서 신념을 잃고 절망 속에서 모든 것에 불안과 의문을 가진 후 결국 오직 자기 개인에로 돌아 가는 길만이 남아 있다고 설교하면서 가장 란폭한 부르죠아적 개인주의와 《자유》, 방종을 고취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

남조선의 한 잡지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실존 철학은 개인의 자주성, 결단성, 책임감을 중시하며 사회주의에도 대항한다. 이 점이 실존 철학이 사회주의로부터 개인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소이가 있다》.

그들은 흔히 주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주체는 맑스주의에서 말하는 주체와는 인연이 없으며 절망과 공포에 떨고 있는 괴롭고 우울하고 죽어 가는 개체이다.

실존주의 신봉자들은 인테리들을 널리 끌어 당겨 보려고 자기들이 인간에 대하여 배려하는 것처럼 묘사한다. 그들은 실존주의를 론할 때면 입버릇처럼 《인도주의》와 《자유》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인도주의를 완전히 외곡하고 있다. 례하면 남조선의 한 《철학자》는 인도주의를 《과학과 기계 문명의 압력과 싸우는 것》이라고 언명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가 말살되는 원인은 고도로 발전된 기술 기계 문명이 인간을 《기구화, 평균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어 어떤 자는 《한국적 휴머니즘은…현대의 공산주의에 선봉으로서 항거하는 것이다》라고까지 떠벌리고 있다.

남조선에서 실존주의는 가장 전형적인 인간 증오 사상을 고취하고 있다.

적지 않은 경우에 《조심성 없는》 남조선의 실존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인도주의》가 극악한 인간 증오 사상에 안받침되고 있다는 데 대하여 자체 폭로하고 있다.

남조선의 한 실존주의 신봉자가 인간을 《짱글의 야수보다 잔악한》 존재라고 규정한 것은 이것을 잘 말하여 준다.

그들은 자본주의 나라의 대부분의 실존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철학이 기독교와 결합될 것을 로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의견에 의하면 오직 기독교만이 모순 덩어리인 인간으로 하여금 죄와 죽음, 불안을 이길 수 있게 하며 영생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남조선의 한 실존주의 신봉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심지어 그들은 《실존주의가 야기한 인간 존재의 문제를 실존주의 자체는 해결을 줄 수 없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면서 기독교가 자기들의 철학보다도 더 우월하다고까지 설교한다.

남조선 사상계에서 실존주의가 얼마나 커다란 해독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문학 분야에서 더욱 뚜렷이 찾아 볼 수 있다. 실존주의의 사상적 독소에 포로되여 있는 작가들은 자기의 창작 활동에 있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오직 신비로운 《실존》의 세계에만 파고 들어 간다. 그들의 작품은 주인공들을 취급함에 있어서 그 대부분이 비정상적이고 변태적인 성격의 소유자를 다루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주인공들은 생활에서는 아무런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자기 행동에서는 그 어떤 원칙도 없는 무의지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나타난다. 그리고 자기류의 개인적인 《진리》와 개인주의적인 도덕적 규범에 의하여 생활한다. 따라서 그들은 가장 파렴치한 비인간적 죄행이나 방탕한 만행을 감행하고서도 하등의 량심적 가책을 느낄 줄 모르며 사회적 의무감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한다.

실존주의 계렬의 문학 작품들이 선택하는 소재에는 이러한 괴한들에 의하여 서슴 없이 감행되는 살인, 변태적인 색정의 발로, 자살, 방탕 등과 같은 보통 상상하기 힘든 퇴폐적인 사건들이 그 중심으로 되여 있다.

그들은 남반부 현실의 추악상과 부패상을 묘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결국 허무에서 그 출로를 찾고 있다. 그들의 작품에서 묘사되는 인간들은 막다른 골목, 《무(無)의 심연》 앞에서 오직 죽음이라는 미래밖에 가지지 못한 따라서 절망과 공포에 몸부림치는 인간들이다.

이리하여 실존주의는 비판적으로 사유하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의 정신 세계를 타락시키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실존주의 신봉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맑스-레닌주의 사상, 맑스주의 철학을 반대하려는 데 있다.

남조선 출판물들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은 《근대 유물론이 현대 사회에 끼친 해독》을 날조하며 맑스-레닌주의를 《비인도적인》 학설로 묘사해 보려고 갖은 수단을 다하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이 맑스주의를 외곡하여 그것을 《공격》하면서 사회주의의 현실에 대하여 야비하게 중상하는 한편 자본주의를 미화하는 온갖 반동적이며 개량주의적인 사상을 전파시키고 있다. 여기서 그들의 반동성과 해독성은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

이에 있어서 그들은 현대 수정주의자들과 련합 전선을 취하고 있다.

모든 현대 부르죠아 철학의 뒤꽁무니를 따라 가고 있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실존주의 철학 사상과 개념들을 점차 많이 리용하고 있다.

창조성과 독자성의 결여로 특징적인 현대 철학적 수정주의자들은 한편으로는 맑스주의를 표방하면서 맑스주의 철학의 기본 명제를 관념론의 명제로, 관념론과 유물론의 혼합물로 교체하며 다른 편으로 겉으로는 실존주의를 비롯한 현대 부르죠아 철학을 비판하는 체 하면서 그 사상과 개념들을 채용하고 있다.

때문에 현 시기 실존주의를 비롯한 부르죠아 철학의 반동적 본질을 폭로 비판하는 것은 현대 수정주의와의 투쟁을 보다 성과 있게 진행하고 맑스주의 철학의 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쟈즈의 본질

허 일 상

오늘 미국을 비롯한 서구라파의 여러 나라들과 남조선 등지에는 미국식 쟈즈가 류포되여 사람들의 건전한 리성과 정서 생활을 마비시키면서 극도의 해독적 작용을 놓고 있다.

발작적인 리즘과 기형적이며 무정형적인 선률 및 혼잡한 부조화음과 광란적인 춤으로 특징 지어지는 미국식 쟈즈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억만 장자들의 관능적 흥분을 자극하기 위한 반인민적 반사실주의적 음악이다. 그것은 허무와 극도의 개인 리기주의를 설교하는 실존주의, 실용주의 등 부르죠아 반동 철학을 바탕으로 하여 배양되였으며 온갖 범죄로 일관되여 있는 미국식 생활 양식의 형상적 반영이다.

쟈즈의 이러한 반인민적 본질로 하여 그것은 오늘 다른 나라를 침략하며 예속화하기 위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수단으로, 제국주의의 사상적 무기로 리용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예속 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쟈즈를 강요함으로써 식민지 예속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에게 패덕과 패륜을 설교하며 동물적인 향락주의와 굴종의 사상을 배양하고 있다.

특히 오늘 쟈즈는 우리 조국 남반부에 류포되여 남조선 인민들을 무기력과 절망의 나락으로 이끌어 가며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미풍 량속을 파괴하며 남조선 근로 대중의 혁명 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쟈즈의 발생과 그 본질을 철저히 밝히며 그의 해독적 작용을 폭로하는 투쟁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음악을 고수하며 인민들 특히 청년 남녀들 속에서 건전한 미학적 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쟈즈는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제국주의의 산물이며 막다른 골목에 다달은 서구 부르죠아 음악의 전면적인 쇠퇴 몰락과 붕괴의 표현이다. 그것은 쟈즈가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질과 모순이 전면적으로 드러나고 서구 부르죠아 음악이 전면적인 붕괴기에 들어 선 제 1차 세계 대전 시기에 발생하였으며 그 후 제국주의자들의 최후 운명이 박두함에 따라 더욱 부패하고 광란적인 것으로 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말하여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죠아 음악가들과 평론가들은 마치도 쟈즈가 전통적인 흑인 민요를 발전시킨 것이라거나 또는 보통 사람들의 미학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음악이라거니 하면서 쟈즈의 본질을 은폐하려고 헛되게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쟈즈는 흑인들의 전통적인 민족 음악과는 하등의 인연도 없다는 것은 쟈즈의 발생 력사가 실증하여 주고 있다.

사실에 있어서 흑인들은 오래 전부터 매우 독특하고 현저한 일종의 음악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오랜 력사를 두고 형성 공고화된 흑인들의 음악은 그들의 생활 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그 독특한 선률적 미와 리즘의 다양성, 생동성으로 하여 사람들을 매혹시킨다.

그런데 백인들의 악독한 노예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미주 흑인들의 생활에서와 음악 발전에서는 일정한 변화가 생겨났다. 백인들은 미주 흑인들을 정신적으로 노예화하기 위하여 흑인 부락에로 카톨릭 종교와 함께 종교 음악도 끌어들여 왔다. 그리하여 종교 음악과 부패한 서구 부르죠아 음악적 요소들이 흑인 음악에 침습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흑인 음악과 구별되면서도 흑인 음악적 요소를 다분히 가진 노래와 춤들이 미주 각처에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미주 흑인들은 반조(흑인들의 전통적인 민족 현악기)와 민족 타악기로 되는 소규모의 안쌈블로 구성된 악단들을 조직하여 연주 활동을 전개하였다.

흑인 악단들이 연주하는 노래와 춤은 아직도 그 독특한 선률적 매혹력과 리즘의 생동성, 춤가락의 풍부성으로 특징지어졌으며 관중들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쟈즈는 아니였다.

문'자 그대로의 쟈즈의 력사는 제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한 초기에 미국 유흥장에서 시작되였다.

근로자들을 무제한하게 착취하여 비대하여진 미국 독점 자본가들은 저들의 관능적 향락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온갖 수단들을 추구하였다. 미국 억만 장자들의 고용 음악가들은 상전의 소위 이러한 미학적 요구에 수응하기 위하여 생기 발랄하고 매혹적인 흑인 악단들의 음악에서 그 인민적 내용을 제거하고 그들의 음악 양식을 악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미국 억만 장자들의 유흥장에서는 일종의 쟈즈 음악과 쟈즈 춤이 급속히 전파되여 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관능적 흥분을 자극하는 그의 기본 성격도 형성되여 갔다. 제 1차 세계 대전이 종결될 무렵에 쟈즈의 스찔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였다.

쟈즈 음악과 춤이 구라파의 여러 지역에 보급되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제 1차 세계 대전 후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인 진출과 관련되여 있으며 다른 편으로는 부르죠아 음악이 쇠퇴 몰락기에 처하여 있던 당시의 구라파에서 미국 쟈즈 자체의 본성으로 하여 독점 지배 계층의 마음을 끌 수 있었다는 사정과 관련되여 있다.

그리하여 서구라파 일대에서는 미국 쟈즈 악단들의 흥행 연주가 계속되였으며 구라파 자본주의 나라들과 일본 등 여러 곳에서는 미국식 쟈즈의 《모범》을 따라 저들의 쟈즈 악단들까지 대대적으로 조직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 쟈즈는 부패 타락한 억만 장자들과 패덕한들의 색정적이며 변태적인 향락과 악취미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더욱 추잡하고 광란적인 형태를 띠게 되였다.

다른 한편으로 쟈즈는 자본주의 세계를 밑바닥으로부터 뒤흔들어 놓은 1929~1932년의 공황을 전후하여 급속히 장성 강화된 로동 계급의 혁명적 진출을 제어하기 위한 반동적 독소의 정체를 더욱더 뚜렷이 드러내 놓게 되였다.

이 시기에 류행된 《혹스 트롯트》, 《탕고》, 《부르즈》를 비롯한 형형색색의 쟈즈 음악과 춤들은 알송달송하고 달콤하고 애상적인 성격들의 것이였으며 그것들은 사람들을 무기력과 탐미적인 세계에로 끌고 갔으며 인생에 대한 허무감을 자아내게 하였다.

제국주의가 전면적 위기에 직면한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시기에 와서 쟈즈의 부패성은 절정에 달하였다. 반동 음악가들은 《맘보》요, 《부기—부기》요, 《록큰롤》이요, 《훌라후프》요 하는 그 이름조차 해괴망칙한 각종 쟈즈 음악과 춤들을 시시각각으로 빚어 내기 시작하였다. 최근 시기에 더욱 로골화되고 있는 소위 쟈즈의 《새 형식》에로의 변화 과정은 바로 평화, 사회적 진보 및 민족적 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세계 도처에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최후 발악의 상징적 표현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미제가 류포시키고 있는 쟈즈는 흑인 음악과는 하등의 인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철두철미 반사실주의적 《예술》이다.

미국 쟈즈에서 특징적인 것은 무엇보다 그의 비선률성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름답고 류창하게 흐르는 표현적인 선률성은 진정한 사실주의 음악의 근본 속성이다. 그것이 성악곡이건 혹은 기악곡이건을 막론하고 음악에서 사람들의 사상 감정은 오직 선률을 통하여서만 표현될 수 있다. 사실주의 음악에서 선률의 풍부성과 미는 인간의 사상 감정의 풍부성과 미의 표현이다. 따라서 선률적 풍부성과 선률적 미의 심원성은 곧 사실주의 음악의 기본 특징을 이루게 된다. 선률은 인간의 사상 정서적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수단들 가운데서 기본 핵을 이룬다.

사실주의 음악에서 선률은 유구한 력사 발전 과정에서 인민이 창조한 음악, 특히는 민요에 기초하여 그것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풍부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 음악과의 밀접한 련계는 음악에서의 사실주의의 기본 징표의 하나로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쟈즈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활의 의의를 깨닫게 하며 창조와 투쟁에로 지향하게 하는 아름답고 고상한 선률성이란 조금도 찾아 볼 수 없다. 만일 부르죠아 음악가들의 말대로 쟈즈에 선률이 있다면 그것은 최근 년간에 류행되고 있는 《록큰롤》, 《록카빌리》, 《훌라후프》 등의 미국 쟈즈에서와 같이 가마 밑창을 긁는듯한 찢어지는 무정형적인 소리와 맹수의 울부짖음과 같은 둔하고 무딘 선률적 토막 뿐이다. 이것은 다른 무엇이라고 부를 수는 있으나 결코 선률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미국 쟈즈에서의 이러한 선률적 빈곤성, 선률성의 결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인간적인 사상 감정이 결여되여 있다는 사실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인민 음악과는 전혀 인연이 없으며 선률적 표현성을 상실한 쟈즈가 사실주의 음악과 무관계하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사실주의 음악에서 선률적 미와 표현성은 리듬의 풍부성과 떼여 놓고 생각할 수 없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선률은 생동한 리듬적 표현성으로 안받침되고 있다. 생동한 유기체로서의 선률은 항상 그의 고저 관계가 생기 발랄한 장단으로 조직되여 있는 경우에만 자기의 표현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리듬은 음악의 중요 구성 성분이며 또한 선률의 중요 구성 성분이기도 하다.

이미 제 2차 세계 대전 이전 시기에 음악에서 리듬을 일방적으로 과장하는 형식주의적 경향이 서구의 반사실주의적 음악에서 나타났다. 쟈즈는 이러한 반사실주의적 경향을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거기서는 리듬이 일방적으로 과장되고 있다.

쟈즈의 리듬은 기계적인 우둔성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발작적인 것으로 특징 지어지고 있다. 쟈즈의 광적이고 우둔한 성격은 부단히 반복되는 엇붙임에 의하여 절름거리는 리듬으로 조성된다.

이와 같은 리듬 아닌 리듬은 사람들의 감정을 갈기갈기 도려 내며 그 어떤 동물적 세계를 련상케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무아지경의 나락에 굴러 떨어지게 한다.

한때 미제는 남조선과 여러 나라들에서 마치 원시인들이 란무하는 장면을 련상시키는 《비바로》라는 쟈즈 음악을 보급시켰다. 극히 단조롭고 무딘 리듬의 반복과 맹수들의 울부짖음 소리가 뒤섞여 있는 이 《음악》은 정상적인 감각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소름을 끼치게 한다. 이 《음악》을 들으면 남조선에서 어린이들을 자동차로 깔아 죽이고도 기뻐 날뛰는 양키들의 흉악 무도한 살인귀 형상이 떠 오른다.

이것은 쟈즈가 20세기의 야만이며 식인종인 미 제국주의자들의 야수성과 둔감성의 형상적 반영이라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 놓고 있다.

쟈즈는 그 혼잡한 화성으로도 특징적이다. 사실주의 음악에서는 화성과 같은 풍부한 표현 수단의 선택도 선률 형상에 의존한다. 그리고 그것은 선률 형상을 안받침하며 그것을 더욱 풍부화시킬 때 진정한 의의가 나타난다.

그러나 쟈즈에서는 이러한 사실주의 음악의 원칙이 란폭하게 거부되고 있으며 거기서는 부자연스럽고 제멋대로 서로 뒤엉킨 부조화음들의 괴이하고 소란한 울림이 지배하고 있다. 그리하여 쟈즈에서는 화성의 기본 법칙성을 조금도 찾아 볼 길이 없다. 이와 같이 쟈즈는 서구라파의 무조 음악과 함께 인류가 축적한 음악적 법칙성을 되는 대로 집어 던지고 오직 혼란과 혼잡으로 지배되고 있다.

쟈즈의 본질은 그의 광란적인 음악과 색정적인 춤이 결부되였을 때 남김없이 드러난다. 실상 쟈즈는 광란적인 음악과 춤의 혼합물로 자기의 력사를 시작하였으며 오늘에 있어서도 이 두 요소들이 서로 결합되여 사람들을 정신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있다.

위대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작가인 막심 고리끼는 쟈즈를 《비대한들의 음악》이라고 락인 찍으면서 그의 추악한 본질을 폭로 규탄한 바 있다.

《돌연히 쥐죽은듯한 정적을 깨뜨리며 되는 대로 두다리는 마치 소리와 같은 것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열 번, 스무 번…그러자 그 뒤를 이어 동물적인 비명, 요란한 소음, 울부짖음, 돌을 가는듯한 소리들이 무질서하게 튀여 나온다. 그것은 마치도 맑고 투명한 수면에 더러운 물건을 던진 때와도 같이 혐오스러운 소리들이다. 련이어 말의 울음 소리를 련상시키는 비인간적 웨침이 터져 나오고 메'돼지의 으르렁 대는 소리, 노새의 울음소리, 련정에 겨워 고와대는 큰 개구리의 울부짖음들이 뒤엉켜 터져 나온다. 혐오스럽기 짝이 없는 이 모든 광란적인 악성들의 혼잡은 알릴락 말락한 하나의 리듬에 복종되고 있다. 이 소리들을 한 1~2분 듣고 있노라면 자연히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저것들은 모두가 색정 무대에서 미친 사람들이고 그 어떤 무당이 지휘하는 서투른 악대일 것이다—》.

이것은 쟈즈가 아직 형성 초기였던 1928년에 쓴 것이다. 현 시기 쟈즈의 추악성이 그 절정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념두에 둔다면 쟈즈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가를 리해하기 힘들지 않다.

* *

미제가 오늘 남조선 인민들과 저들의 예속하에 있는 나라 인민들에게 그처럼 발광적으로 쟈즈를 류포시키고 있는 리유는 쟈즈의 바로 이상과 같은 반동적 본질로 하여 그것이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에 가장 철저히 복무하고 있다는 데 있다.

미국식 쟈즈의 악독한 독소에 침식된 일부 나라 청년들은 미국식 생활 양식을 동경하며 그것을 극구 찬양하며 미국 청년들의 본때대로 행동하려고 하면서 색정적 향락을 인생의 최고 목적이라고까지 떠벌리고 있다.

쟈즈의 악독한 후과는 특히 오늘 남조선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는 미제 침략군의 《쎈터》에 복무하고 있는 쟈즈 악단들과 쇼들의 수만 해도 60 여개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가 미국식 쟈즈를 남조선에 직접 전파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놀고 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에서는 우리 인민이 오래 전부터 사랑하여 온 《아리랑》, 《도라지》를 비롯한 많은 민요들을 《아리랑 맘보》니, 《도라지 맘보》니 하면서 쟈즈화하였다.

이렇게 미제는 우리 인민의 아름답고 고상한 정서와 예지가 깃들어 있는 민

요를 쟈즈화하면서 우리 민족 음악을 모독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미제가 우리 민족 음악을 말살하고 있는 것은 이 뿐이 아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제의 민족 문화 말살 정책에 의하여 오래 전부터 우리 인민의 고상한 민족적 리념을 표현하여 온 창극도 저속한 쇼로 전락되고 있다. 16~17세의 묘령의 녀성들로 구성되여 있는 창극단들의 공연이란 실상 녀성들의 육체미의 시위장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쟈즈의 영향 하에 창극 무대에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해괴망칙한 현상들이 벌려지고 있으며 추잡하기 짝이 없는 남녀의 치정 관계가 소위 민족 설화의 탈을 쓰고 벌려지고 있다.

남조선의 한 필자가 쟈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현숙한 안해가 정로에서 미끄러져 어린 자식까지 버리고 나돌아 다니는 일과 미혼의 처녀들이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빠져 버리는 일이 비일 비재》하다고 개탄한 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이처럼 쟈즈는 철두 철미 미제의 식민지 노예화 정책에 복무하는 사상적 무기이며 모든 나라의 민족 음악을 말살하기 위한 수단이며 사실주의적인 민족 음악의 악독한 적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음악을 비롯한 모든 예술의 위력은 그것이 인민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생활의 의의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며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의 창조를 위한 투쟁에로 고무하는 데 있다. 1930년대에 김 일성 동지의 령도 하에 진행된 항일 무장 투쟁 행정에서 형성 발전된 혁명 음악과 이 슬기로운 뿌리에서 자라나 찬연히 개화 발전하고 있는 해방 후 시기의 우리 음악이 우리 근로 대중의 심장을 틀어 잡고 그들을 전대미문의 위훈에로 고무하는 그 크나 큰 힘의 원천도 바로 이 음악이 생활의 뜻을 해명해 주며 우리 인민이 나아갈 방향을 밝혀 주는 그 높은 사상성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쟈즈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타락과 승냥이 도덕을 강요하며 타태와 무기력, 굴종과 절망의 사상을 고취하면서 그들의 건전한 리성과 정서 생활을 침식하고 있으며 청년 남녀들을 오직 부르죠아적 륜락의 길로만 이끌어 가고 있다.

쟈즈는 근로자들에 대한 무제한한 착취와 억압, 살인, 강도, 략탈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가 빚어 낸 추악한 오물이며 따라서 그의 운명도 박두한 제국주의자들의 최후 운명과 때를 같이 할 것이다.

쟈즈는 근로자들을 로력적 위훈에로 부르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음악과는 결코 량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적이다. 그것은 진정한 사실주의 음악이 개화 발전하고 있는 그러한 곳에서는 자기의 바탕을 마련하지 못한다.

오늘 쟈즈와의 비타협적인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드는 것은 모든 진정한 예술의 신성한 의무이며 그것은 동시에 건전한 사실주의 음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다.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의 력사적 조류를 막을 힘은 없다

김 윤 선

2차 대전 이후 국제 정세 발전의 추세는 서로 상반되는 대립 과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써 특징 지어진다. 즉 한편으로는 승승장구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과 세계 평화 력량이 급격히 장성 발전하고 있으며 다른 편으로는 자본주의 세계의 세력 범위가 날로 좁아지며, 세차게 타오르는 반제 민족 해방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가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 1914년에는 세계 령토의 56%, 인구의 34.3%를 차지하였던 식민지가 1961년에는 벌써 면적에서는 7.9%, 인구에서는 2.2%로 축소되였다.

2차 대전 이후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들에서의 인민 민주주의 혁명의 승리, 대전 과정에서의 일본 제국주의, 독일 및 이태리 파씨즘의 괴멸, 불란서, 영국을 비롯한 식민지 렬강의 현저한 약화는 식민지 체계의 붕괴를 촉진시킨 중요한 요인이다. 력사의 전환기에서 민족적 각성이 급격히 높아진 식민지 인민들은 그들의 투쟁에 유리하게 전변된 정세를 리용하면서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더욱 확대하였다. 이에 앞서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서 대전 후 민족 해방 투쟁이 급격히 발전할 수 있은 주관적 력량이 이미 준비되여 온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식민지 나라들에서의 로동 계급의 투쟁 경험, 그의 자각성과 조직성의 장성, 그가 참가한 대전투들은 대전 후 급속히 앙양된 민족 해방 운동의 기초로 되였다. 로동 계급은 파업 투쟁과 시위를 통하여 인민들에게 제국주의적 착취와 압박의 근원을 인식하도록 깨우쳐 주었으며 인민들의 진출을 고무하였다. 또한 생활 자체가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에게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었으며 정치적 변동이 없이는 그들의 생활 조건에서 그 어떠한 근본적인 변화도 기대할 수 없으며 경제적 진보도 불가능하다는 것, 그 변동의 조건으로 되는 것이 민족 해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대전 후 식민지 체계의 급격한 붕괴와 민족 해방 운동의 심화 과정을 촉진시킨 다른 중요한 요인은 사회주의 진영이 정치, 경제, 문화 령역에서 달성한 빛나는 성과, 그 위력의 장성이며 그것이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에게 준 막대한 영향이다. 사회주의 체계의 형성과 그 위력의 장성은 제국주의적 통치를 반대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에 막대한 지지와 원조를 주고 있다.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지지와 성원에 의거함으로써 자국에서 식민주의를 성과적으로 청산할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일환으로서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지지하는 것을 자기의 신성한 국제주의적 의무로 간주하고 있다.

조선 인민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투쟁에서 항상 그들의 편에 서 있다.

《국제 생활에서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여 온 원칙의 하나는 피압박 인

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에 대한 확고한 지지입니다. 과거 오래 동안 외래 제국주의의 식민지적 억압을 받아 왔으며 오늘도 나라의 절반 땅을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강점 당하고 있는 조선 인민은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와 민족적 억압을 결정적으로 반대하며 모든 피압박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열렬히 지지 성원하고 있습니다》(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4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

오늘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붕괴는 동일한 형태로서가 아니라 각이한 성숙 정도에 의하여 서로 구별되는 이러저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력사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로동 계급이 맑스-레닌주의 당의 령도 밑에 민족 해방 투쟁을 지도하는 나라들에서는 혁명의 결과에 인민 민주주의 제도가 수립되였고 민족 부르죠아지가 우세를 차지하는 반제 력량이 민족 해방 운동을 지도하는 나라들에서는 부르죠아-의회적 공화국이 수립되였다. 이러한 나라들에서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 체계의 붕괴가 철저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체계의 이러한 붕괴는 제국주의를 더욱더 약화시키며 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 사회주의의 힘을 강화함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나라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은 사회주의 진영의 장성과 날로 장성하는 평화 애호 력량에 고무되면서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서고 있다.

이 투쟁은 매개 나라의 력사적 과거, 전통, 계급적 력량 관계 등에 의하여 규정되는 자기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공통점을 띠면서 발전하고 있다.

우선 투쟁의 규모에서 볼 때 반제 민족 해방 운동은 제국주의 식민지 예속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휩쓸고 있으며 전 인민적 성격을 띠고 있다.

아세아에서는 이미 식민지가 거의 없어졌으며 아세아의 정세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아세아 인민들은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쓸어 버리기 위한 단호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장기간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달성한 라오스 인민과 인도네시아 인민의 승리는 제국주의 특히 미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반제 투쟁을 크게 고무하여 주고 있다. 오늘 남부 월남에서의 미제의 식민지 통치는 근저로부터 뒤흔들리고 있다. 남부 월남 인민 무장대는 남부 월남 령토의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의 활동 범위는 사이곤 근교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금년 상반년 동안에 인민 무장대는 연 3천 500회 이상의 전투를 통하여 수많은 미군 장교들을 포함한 1만 6천 여명의 적군을 살상 포로하였으며 근 1만 5천 여명의 괴뢰군이 무기를 들고 인민 무장대에 넘어 왔거나 고향으로 도주하였다. 또한 일본 군국주의와 미제를 반대하는 일본 인민의 전 인민적 진출들에 의하여 미제의 소위 《아세아 요새》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오늘의 남조선 정세 발전은 금시에 터지고야 말 화산을 방불케 하고 있다.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이 격화됨에 따라 인민들의 반미 반《정부》 감정과 반항 기세는 절정에 달하고 있다. 지금 남조선에는 광풍 전야의 정적이 떠돌고 있다.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전 대륙이 그야말로 투쟁의 바다로 화하고 있다.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에 대한 알제리아 인민의 승리, 포도아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앙골라 인민의 완강한 투쟁 등은 이 대륙에서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량한 이웃》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에 사로 잡혔던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은 각성하였으며 그들은 북미의 괴물보다 더 강대한 력량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큐바 혁명의 승리적인 발전, 큐바에 대한 미제의 무력 침공의 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은 미제의 침략 정책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다. 미제는 세계 도처에서 인민들로부터 고립되고 있다. 《우리는 란폭성과 확고성이 부족하여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 대중들이 우리에게서 돌아 서고 있는 것으로 하여 고통을 받는다》고 리프만은 서글프게 하소연하였다.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 과정에서 날로 공고해지는 각 민족 부대들 간의 련대성, 공동 전선의 강화는 이 투쟁에서의 다른 하나의 특징이다. 1955년에 있었던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의 《반둥 회의》, 반제 해방 투쟁에서의 련대성 강화를 위한 많은 국제적 회합들, 큐바에 대한 미제의 무력 침공을 반대 규탄한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일치한 목소리는 그에 대한 명백한 실례들이다.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이 심화 발전되면서 많은 나라들에서 정치적 견해와 신앙의 여하에 관계 없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반제 애국 력량을 망라하는 반제 민족 통일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이것은 반제 해방 투쟁의 승리의 유일한 담보이다. 반제 민족 해방 투쟁에서 형성되는 로농 동맹은 민족 통일 전선의 기초로 되고 있다. 이 투쟁에서도 가장 철저한 반제 력량은 로동 계급이며 그는 가장 철저한 민족적 리익의 옹호자로 되고 있다. 최근 수십년 간에 식민지 예속 국가들에서 로동 계급의 대렬이 현저히 장성하였으며 투쟁 속에서 그들의 각성과 조직성도 크게 제고되였다. 오늘 아프리카에는 식민지 당국의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1천 500만의 로동 계급이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에는 2천 500만의 로동 계급이 있다. 거의 모든 나라들에 로조들이 조직되여 있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령도 밑에 이 대륙의 로동 계급은 투쟁에서 자기 대렬의 단결과 모든 근로자들의 행동 통일을 실현하였으며 단련되고, 풍부한 반제 민족 투쟁 경험을 축적하면서 민족 해방 투쟁의 지도자로 장성하고 있다.

오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투쟁이 많은 경우에 무장 투쟁의 형태를 띠면서 발전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것은 반제 민족 해방 운동이 보다 단호하고도 결정적인 수단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제국주의자들이 무력으로 식민지 인민들을 탄압하고 있을 때 민족 해방 투쟁의 승리는 오직 무력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조선 근대 혁명 운동의 력사와 중국 혁명의 력사는 이것을 실증하여 준다. 라오스 인민의 승리, 큐바 혁명의 승리, 7년 반에 걸치는 투쟁에서의 알제리아 인민의 승리는 모두 이 진리에 대한 대답으로 된다.

제국주의가 전 인류의 흉악한 원쑤이며 식민주의의 아성이며 식민지들에서 헌병 노릇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의 예봉이 미제를 반대하는 데 돌려지고 있는 것은 특징적이다. 지난 대전 과정에서 부유해진 미제는 영국, 불란서를 비롯한 구식민주의자들이 대전에서 심히 약화된 것을 리용하여 그들의 식민지들에 침투하여 새 주인 행세를 하며 막대한 리권을 차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제는 구식민주의자들에게 막대한 무기와 자금을 제공하며 《평온하지 않은》 지대들에 미군 부대를 파견함으로써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려 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 식민지 예속 국가들에서의 반제 해방 투쟁은 곧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서는 세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제국주의의 전략적 후방이며 그들의 유일한 치부의 원천인 식민지 체계는 허물어지고 있으며 식민주의는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다.

그렇기는 하나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이 아무런 난관이나 시련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거나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가 스스로 붕괴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반제 민족 해방 투쟁 앞에는

허다한 난관이 있으며 시련이 있다.

식민지 체계의 총 붕괴에 직면하여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그것을 수수방관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식민지 체계를 유지하며 식민지적 착취 제도를 보존하기 위하여 갖은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리용하는 수단의 무기고는 좁아진 것이 아니라 더욱 넓어졌다.

미제는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는 데서 축적한 자기의 교형리적 《경험》에 근거하여 더욱더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들을 적용하고 있다. 그들은 소위 《자유 세계》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지 전쟁》과 《특수 전쟁》 등 군사적 방법으로 민족 해방운동을 탄압하기에 광분하고 있다. 미제가 남부 월남과 동남 아세아를 《특수 전쟁》의 훈련장으로 리용하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제는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 반제 민족 해방 운동을 말살하며 침략 행동을 감행하며 이 지역들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군사력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그들은 낡은 전통적 식민지 통치 방법 대신에 《새로운 협조적 관계》의 수립이라는 가면 밑에 신식민주의 탈을 쓰고 나왔다.

1960년의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 성명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 식민주의의 주되는 아성은 미국이다.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과거의 식민지 인민들에 대한 식민지적 착취를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형태로 유지하기에 광분하고 있다. 독점체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서 경제적 통제와 정치적 영향의 공간을 자기 수중에 계속 틀어쥐려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해방된 나라들의 경제에서 종래의 지위를 유지하고 경제적 〈원조〉라는 미명 하에 새로운 지위를 탈취하며 해방된 나라들을 군사 뿔럭에 끌어 들이며 이 나라들에 군사 독재 제도를 수립하고 군사 기지를 창설하는 데로 돌려지고 있다》.

이른바 미제를 괴수로 하는 신식민주의는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가 붕괴되는 조건에서 식민주의 정책을 계승한 것이다.

새 형태의 식민주의의 주되는 수법의 하나는 식민지 인민들에게 형식적인 독립을 부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종전의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최근 년간 《독립》한 아프리카의 일련의 나라들에서의 사태는 바로 그것을 똑똑히 보여 준다. 제국주의자들은 이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 사실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

새 형태의 식민주의는 또한 후진 국가들을 각종 군사 뿔럭에 인입하거나 쌍무적 군사 조약으로 얽어매 놓음으로써 이 나라들에 군사 기지를 설치하며 군대를 주둔시키며 군사 고문들을 대량적으로 파견하여 완전히 예속시키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것은 미제의 신식민주의 정책에서 특징적이다.

례컨대 나토는 아프리카에 적어도 17개의 군사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쏘 침략 전쟁의 준비와 아프리카 민족 해방 운동의 탄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최근 라오스, 남부 월남에 대한 미제의 무력 간섭에서의 세아토의 역할, 큐바 혁명과 라틴 아메리카 민족 해방 운동을 말살하기 위한 미제의 정책에서의 미주 국가 기구의 역할, 콩고, 앙골라 등에서의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함에 있어서 나토가 놀고 있는 역할 등은 이것을 실증하여 준다.

미제는 또한 빈번한 쿠데타와 군사 테로의 방법으로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정부를 전복하는 것을 상투적인 수법으로 삼고 있으며 《분할하여 통치하라》는 구호 밑에 각종 분렬 책동을 꾀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신변강의 개척》이라는 간판 밑에 후진 국가들에 파견하고 있는 소위 《평화군》이란 바로 이러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후진 국가들에 대한 예속과 략탈을 강화하기 위해 리용하고 있는 미제의

주요한 도구는 또한 그들의 소위 《원조》 정책이다. 그들은 이 《원조》 정책을 내걸고 미국의 《리타주의(利他主義)》적 동기와 《무욕(無慾)》에 대한 소란스러운 선전을 퍼뜨리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심 없는》 《원조》의 배후에는 미제의 가장 악랄한 군사 전략적 및 식민지 리해 관계가 숨어 있다는 것은 벌써 비밀이 아니다. 미제의 《원조》의 결과 오늘 남조선의 경제는 철저히 미국에 예속되고 파산 당하고 있으며 민족 산업의 발전의 길은 완전히 막혀 있다. 이러한 사태는 남조선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소위 《원조》 정책을 접수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례외 없이 그러한 형편에 있다.

이와 함께 미제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공산주의의 팽창》이니, 《공산주의의 파괴 활동》이니 하면서 이것을 무력 간섭과 탄압의 구실로 리용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 체계의 붕괴 과정을 막으며 식민지 예속 국가들에서 자기의 통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의거하고 있는 주요한 수법들은 이러하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이 아무리 악랄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수단이 아무리 교활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죽음 앞에서의 몸부림으로서 붕괴에 직면한 식민지 체계를 구원할 수 없다.

력사의 경험은 제국주의자들이 스스로 자기의 식민지 특권을 버리지 않으며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에게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선사》하지 않는다는 것,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진정한 자주권의 전취는 민족 통일 전선의 기치 하에 일체 애국 력량이 단합하여 제국주의자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 필요하다면 단호한 무장 투쟁을 전개하여 제국주의자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최근의 라오스 인민의 승리,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알제리아 인민의 승리, 화란 식민주의자들과 그 배후에서 조종자의 역을 담당한 미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달성한 인도네시아 인민의 승리는 모두 이 진리를 확증하여 준다. 그런데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전락된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의 강화는 세계 전쟁의 위험으로 된다고 함으로써 사실상에서는 민족 해방 투쟁의 포기를 설교하고 있다. 이것은 제국주의 압력에 대한 투항이며 아첨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유고슬라비야의 《리론가》 까르쩰리는 《온갖 전쟁을 반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아주 정의적인 전쟁이라도 반동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식민주의자들의 통치를 반대하는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비타협적인 투쟁은 전쟁 위험의 근원인 제국주의의 후방에 타격을 주며 그의 세력 범위를 축소시키며 제국주의 침략 정책에 타격을 줌으로써 평화를 수호하는 데 거대한 기여로 된다. 조선 인민은 미제가 도발한 3년 간의 가혹한 전쟁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고 그들로 하여금 조선 인민 앞에 무릎을 꿇게 함으로써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극동과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의 유지에 막대한 기여를 하였다.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 앞에는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장기간에 걸친 식민지 통치의 결과에 조성된 경제적 락후성과 그 예속 상태를 청산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경제적 독립이 없이는 진정한 정치적 자주권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은 날로 장성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강유력한 위력과 세계 평화 력량의 강력한 지지에 의거하면서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인다면 식민주의를 지구상에서 종국적으로, 완전히 청산할 수 있다.

이 투쟁은 장기적일 수도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허다한 시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민족적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그치지 않을 것이며 투쟁의 불'길은 더욱더 세차게 타오를 것이다. 그 어떠한 힘으로도 투쟁의 이 거류를 막을 수 없으며 식민주의의 완전한 청산은 불가피하다.

최근 남조선 정세 발전의 주요 추세

—《군사 정변》 후 남조선 정세 개관—

조 한 서

력사적인 우리 당 제 4차 대회 총결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는 남조선 정세 발전의 주요 추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혁명 세력이 날로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인민 대중으로부터 고립된 반혁명 세력이 군사 테로의 모험적 수단에서 출로를 찾으려고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남조선에서의 정세 발전의 주요 추세입니다》.

지난 1년 간 남조선에서의 사태 발전은 김 일성 동지의 지적이 가장 정확하였음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I

4월 인민 봉기에 의하여 리 승만 《정권》이 전복된 후 미제는 장 면 《정권》을 내세워 사태를 수습해 보려고 하였으나 남조선에서의 정치 경제적 위기는 더욱 첨예화되여 갔고 인민 생활은 참을 수 없는 궁지에 빠져 들어 갔으며 부패와 사회적 무질서는 날이 갈수록 심하여졌다.

남조선 인민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지 않고는 착취와 억압, 빈궁과 무권리, 식민지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였다. 남북 협상과 교류를 위한 투쟁이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되였다.

정세 발전은 남북의 저주로운 장벽을 무너뜨리고야 말 전야에 이르렀었다.

이리하여 궁지에 빠진 미제는 괴뢰군 내의 극단적 파쑈 분자들을 끌어모아 《군사 정변》을 조작했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군사 파쑈 독재를 수립함으로써 인민들 속에서 팽배히 일어 나는 남북 평화 통일의 기운을 압살하며 무너져 가는 자기의 식민지 통치 지반을 수습해 보려고 망상하였다.

그러면 미제가 이 흉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 정변》 후 어떠한 정책을 썼는가?

미제는 우선 파쑈적 군사 테로 통치 체제를 수립하고 《반공》의 구실 하에 전대미문의 야수적 폭압 조치를 취했다.

《정변》 이후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들은 남조선에 《국가 재건 최고 회의》, 《계엄 사령부》, 《계엄 고등 군법 회의》 등 살벌한 폭압 기구를 조작하는 한편 특히 《대공》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의 하나로서 《중앙 정보부》를 창설하고 괴뢰 사법, 검찰, 경찰, 괴뢰군 특무대, 괴뢰군 첩보대 등 일체 폭압 기관과 정탐 기관을 그에 종속시켜 군사적 지배 하의 유일적 폭압 체제를 확립하여 남조선을 어마어마한 첩보망으로 뒤덮어 놓았다. 남조선의 모든 기관, 단체, 회사, 공장, 제조소, 학교, 식당, 다방, 농촌 부락, 《국민반》 등 어느 곳을 막론하고 첩보망이 포치되여 있지 않은 곳이 없다.

미제의 사촉 하에 군사 《정권》은 《정변》 후 불과 10개월 간에 자유와 민주주의와 생존을 위한 인민 대중의 초보적 규범들인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파업의 요구마저 범죄로 규정하는 2천 여 건의 각종 악법을 조작하고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체포 투옥할 수 있게 하였다. 그들은 이 악법을 휘둘러 다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였다는 리유로 《사회당》 조직부장 최 백근과 《민족 일보》 사장 조 용수를 비롯한 수다한 사람들을 학살하였다. 《군사 정변》 직후 23개의 정당들과 238개의 사회 단체들을 강제 해산시킨 군사 파쑈 도당들은 금년 3월에는 《정치 활동 정화법》을 조작하고 자기들의 정적(政敵)으로 될 수 있는 일체 세력들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민정 이양》의 간판 뒤에서 파쑈 통치의 계속 유지를 획책하고 있다.

군사 파쑈 도당들의 언론 출판에 대한 탄압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그들은 《군사 정변》 후 약 2,000개에 달하는 언론 출판 기관들을 폐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제와 《군사 정권》에 대한 사소한 의견은 고사하고 남조선에 창궐하고 있는 사회악과 빈곤의 일단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조차 가혹한 형벌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군사 파쑈 도당들은 자기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 일체 집회를 무조건 금지시켰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집회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과 5~6명이 동행하여 길을 걷는 것도 《집회 위반》으로 처벌하였으며 교통 규칙 위반이라는 《죄명》으로만도 매일 수천 명에 달하는 주민들을 처벌하였다.

이리하여 남조선 검찰에서는 《군사 정변》 후 8개월 간에 23만 여명의 주민을 체포하고 《무더기 재판》, 《속결 심판》 등의 파쑈적 방법으로 1일 900건, 30초에 1건씩 무려 14만 여건의 범죄를 처리하는 류례 없는 재판 기록을 내였다.

이 모든 것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군사 테로의 모험적 수단에서 출로를 찾으려고 얼마나 발악하고 있는가를 똑똑히 보여 준다.

파쑈적인 군사 폭압은 남조선에서 절정에 달한 정치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극도로 첨예화시킬 뿐이다. 반동적인 통치배들은 언제나 인민을 탄압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지배를 유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제 손으로 제 발’등을 찍는 격으로 결국은 자멸을 재촉할 뿐이다.

미제는 이러한 탄압 조치와 함께 일련의 회유 기만 조치도 취했다.

탄압과 회유,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예속 국가 인민들을 지배하기 위한 상투적 수법이다.

미제의 조종 하에 군사 《정권》은 자기의 반인민적 정체를 은폐하기 위하여 군사 《정변》을 소위 《혁명》이라고 묘사하면서 《부패 구악의 일소》니, 《민생고 해결》이니 하는 허울 좋은 구호를 표방하였다.

군사 《정권》은 자기들의 경제 정책의 중심이 《공업화에 의한 농촌 진흥이 아니라 농촌 진흥에 의한 공업화》에 있다고 하면서 소위 《중농 정책》(重農政策)을 내걸고 그것을 통하여 농민들을 구호하고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군사 《정권》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한다고 하면서 《계획 기간》에 전력, 석탄, 세멘트, 비료 등 일련의 《기간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자립 경제를 수립하고 공업화의 기반》을 조성한다고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다. 그리고 《중소 기업의 육성》이라는 구호 하에 《중소 기업 은행법》, 《체납 세금의 납부 의무 면제》 등을 조작하여 중소 부르죠아지들의 자금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듯이 표방함으로써 중간 계층을 포섭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군사 《정권》은 《인간 개조》니, 《정신 혁명》이니라는 구호 하에 인민들 속에 허무주의와 굴종 사상을 고취하며 민족적 자부심과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책동을 각 방면으로 더욱 강화하였으며 《반공》, 《친미》 사상을 더욱 집요하게 주입시키기에 광분하고 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이 《혁명》이니, 《자

립 경제 건설》이니, 《민생고 해결》이니 하는 구호는 인민들의 불만을 무마하며 파쑈적 탄압을 강화하기 위한 기만적 술책에 불과하다. 미제의 략탈로 인하여 경제는 극도로 파괴되고 재정은 밑바닥까지 드러난 오늘의 남조선에서 무슨 밑천을 가지고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남조선에서의 사태 발전은 이와 같은 구호들이 허공에 뜬 공담이였다는 것을 뚜렷이 폭로하고 있다. 《군사 정변》 후 경제는 성장된 것이 아니라 더욱 파괴 몰락되였고 민생고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더 참혹한 지경에 빠져 들어갔다.

오늘 남조선 공업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방직, 식료품, 도자기, 고무 공업의 생산은 현저히 감퇴되고 있는바 작년도에 방직은 12.6%, 소맥분은 8.8%, 고무 제품은 5.6%나 각각 감소되였다.

특히 지난 6월 10일에 실시한 《통화 개혁》에 의하여 돌아 가던 공장들마저 그의 65%가 일시에 휴업 상태에 빠짐으로써 공업 생산은 또다시 3분의 1이나 대폭 축감되였다.

남조선 인구의 70%가 종사하고 있는 농업에 있어서도 생산은 일제 시기의 수준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남조선 농가들의 호당 경작 면적은 일제 말기의 1.11정보로부터 작년 말에는 0.87정보로 령세화되였으며 전체 경지 면적은 204만 정보로서 일제 시기에 비해 20만 정보나 감소되였다. 이리하여 남조선에서 《풍년》이라고 떠들던 작년도에도 알곡 생산은 일제 시기의 77%에 불과하였으며 금년에는 심한 한재와 수해까지 겹치여 대폭 축감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재정 금융 부문에서도 전례 없는 혼란과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세입의 부족, 세출의 증대로 작년도 예산 적자는 총 예산액의 20%에 해당하는 100억 원에 달하였으며 금년도 상반년 기간에 벌써 당초의 예산 편성에서 예견하였던 것(37억 5천만 원)보다도 훨씬 많은 51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지폐의 람발로 인하여 통화량은 《군사 정변》 후 금년 5월까지의 1년 간에 무려 54%나 팽창함으로써 해방 후의 최고 기록이였던 전쟁 시기의 팽창 정도에 접근하고 있으며 투기를 일삼는 증권 시장에서는 암투와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작년 1년 간에 근 20%나 등귀한 물가는 금년 1.4분기에 또다시 9.6%가 등귀하였다.

물가의 등귀, 조세 부담의 증대로 남조선 인민들의 실질 소득은 계속 저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조선 전 지역을 휩쓸고 있는 대중적인 실업과 절량으로 인민들의 생활은 최악의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공장 로동자들의 실질 임금 수준은 《정변》 후 20% 이상이나 저하되고 그들의 명목 임금은 평균 2,000원 정도로서 생계비의 3분의 1에도 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순 소득은 년간 생계비의 50%에 불과한 형편에 있다.

기업체들의 파산 몰락과 대량적인 해고, 판자'집 철거, 파쑈적인 각종 《단속》 조치로 인하여 《군사 정변》 후 수십만의 로동자, 사무원, 소작인들이 일시에 생업을 박탈 당하고 실업자 대렬에 들어 서게 되였다. 오늘 남조선의 로력자 100명 중 30명은 실직 상태에 있으며 농촌 주민의 60%가 반실업 상태에 있다.

군사 《정변》 후 경제의 쇠퇴와 인민 생활의 악화에 대하여 남조선 신문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수입은 늘지 않는데 물가는 오른 것만 같이 보여지고 있고 계속되는 불경기 하에서 경제는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업(失業) 문제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우게 되였다》(《한국 일보》 1962년 8월 6일).

제반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미제 침략자들의 남조선 강점이 계속되는 한 그 누가 정권 기관에 들어 앉아 《군정》을 실시하건, 《민정》을 실시하건 간에 남조선 인민들의 처지는 개선될 수 없는 것이다. 군사 테로 통치는 도리여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반《정부》 감정을 더욱 격화시켰을 뿐이다.

2

《군사 정변》 후 얼마 동안 남조선 인민들은 군사 통치배들에 대하여 반신 반의하면서 정세 발전을 관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년 간 군사 《정권》의 테로 통치와 매국 배족적 정체는 여지 없이 드러났으며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미제와 군사 《정권》을 반대 배격하는 기세가 날로 높아 가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기세는 최근 거듭되는 미군의 만행을 계기로 하여 또다시 공개적인 반미 투쟁에로 표면화되였다.

지난 6월 《고려 대학교》 학생 2,000여명은 《미군 린치 사건 규탄 대회》를 열고 미제 침략자들의 만행과 민족적 멸시를 규탄하는 《결의문》과 《호소문》을 채택한 후 군사 파쑈 도당들의 야수적 탄압을 박차고 가두 시위와 《미 대사관》 앞에서의 련좌 시위까지 전개하였다.

이러한 청년 학생들의 반미 투쟁은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과 사회계의 지지 성원을 받았다.

특히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몰아 내기 위한 거족적 투쟁을 전개할 데 대한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제 11차 회의 호소는 반미 구국 투쟁에 일떠 선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무한히 고무하고 있다.

종래 주로 우회적 방법으로 미제의 식민지 통치와 그 후과에 대하여 비난하여 오던 남조선 언론계에서도 공개적으로 미군의 만행을 폭로하며 청년 학생들의 반미 투쟁을 지지하는 데 필봉을 돌리고 있다.

《국제 신보》는 미군의 만행에 대하여 《우리 민족은 미군의 학대를 이 이상 더 참아야 하는가》라는 표제의 사설을 게재했으며 《민국 일보》는 1960년 이후 오늘까지의 《주한 미군 린치 사건 백서》를 공개하였다.

남조선의 한 작가는 언론인들에게 미제와 그 주구를 반대하는 정의의 필봉을 높이 들라고 열렬히 호소하면서 《정필 순사》(正筆 殉死)라는 수필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나라의 흥망을 짊어지고 싸우다가 쓰러지는 것만이 병정의 영예라면, 붓을 들고 바른 것을 적다가 붓과 운명을 같이 하는 길은 문필인의 정도(正道)임을 말할 나위 없겠다. 정필 순사는 문필인의 정의기에 정의 아닌 그 앞에 굴복할 양이면 차라리 붓을 꺾는 침묵이 도리여 현명할 것이다》(《신 사조》 1962년 6호).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들의 테로 통치를 반대하며 생존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한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도 점차 앙양되고 있다.

로동자들은 체불 임금의 즉시 지불과 함께 임금 인상, 8시간 로동제 실시, 실업자 문제 해결, 《로조》 활동의 자유 등을 요구하여 진정과 나아가서는 파업, 롱성 등 각종 형태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투쟁에서 특징적인 것은 종래의 지배적 현상이였던 《로동 조합》과 기업주 사이의 분쟁 대신에 군사 《정권》이 파견한 《근로 감독관》을 상대로 빈번히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것은 로동자들의 불만이 개별적인 기업주 뿐만 아니라 미제의 식민지 통치 기구인 군사 《정권》에 집중되여 감을 의미한다.

농민들의 반미 감정은 미군에 의하여 징발 당한 토지 또는 가옥의 반환과 보상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표현되고 있다.

경북 대구 주변 400여명의 농민들은 이미 전쟁 시기에 미군 비행장으로 징발된 토지 대'가의 보상을 요구하여 나섰으며 경남 고성군 내 일부 농민들은 미군에 의하여 파괴된 가옥 대금의 보상을 요구하여 나섰다.

특히 《정변》 후 남조선 농민들은 토지 문제의 민주주의적 해결을 요구하여 부단히 진출하고 있다. 토지 문제의 해결을 비롯한 농민들의 일련의 투쟁은 남조선의 모든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다. 과거에는 그 투쟁이 주로 계급 분화가 심하고 농민 운동의 전통도 일정하게 있었던 경상 남북도와 전라 남북도 일대에 국한되였다면 4월 봉기 후 최근에 이르러서는 종래 거의 보잘 것 없었던 충청 남북도 일대에도 확대 파급되고 있다.

오늘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반항 기세는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 지식인 뿐만 아니라 남조선의 각계 각층 인민들 속에서도 표면화되고 있다.

남조선의 중 소 상공업자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미국 상품 강매 정책, 영업 활동에 대한 《단속》, 략탈적인 세금 수탈과 로점 강제 철거 등을 반대하여 나서고 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인민들의 반항 기세가 날로 앙양됨에 따라 남조선 반동 지배층 내에서의 모순과 갈등이 더욱 격화되여 가고 있다.

이에 있어서 주목되는 것은 군사 《정권》에 의하여 정치 활동을 박탈 당한 《구정치인》들의 군사 통치배들에 대한 불평과 반감이 심각화되고 있는 사실이다.

그들은 군사 《정권》의 파쑈적 정책을 로골적으로 비난하고 있으며 괴뢰군 일부 장교들과의 련계 밑에 군사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음모를 계속하고 있는바 《민주당 및 2주당 반 혁명 음모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에 발각된 것만 하여도 무려 8건이나 된다.

군사 《정권》 상층 내부에서도 파벌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군사 《정권》 내에서 장 도영, 송 요찬파를 비롯한 박 정희의 적지 않은 반대파 세력들이 이미 제거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상 자파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추악한 암투가 심화되여 가고 있다.

한편 군사 《정권》의 중, 하층 관리들은 파쑈적 규률의 강화, 쪼들리는 생활고에서 오는 불평 불만, 빈번한 숙청 선풍, 군사 《정권》의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몹시 동요하면서 미제와 군사 《정권》의 정책 집행을 의식적으로 기피 또는 태공하고 있다. 결과 파쑈 통치 기능이 마비 상태에 빠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오늘 남조선의 각계 각층 인민들 속에서 미제와 군사 《정권》에 대한 항거 기세가 날이 갈수록 높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또한 남조선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혁명 세력이 날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

지난 1년 간 남조선에서의 정세 발전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혁명 력량은 부단히 장성 강화되고 있으나 반혁명 세력은 사면초가의 처지에 놓여 있으며 그의 운명은 헤여 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미제는 이러한 막다른 곤경에서 벗어나 보려고 《반공》을 더욱 고창하면서 침략 전쟁 준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편 군사 파쑈 도당들은 대외적으로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에게 더욱 아부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인민 탄압을 일층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와 그 주구들의 군사 테로 통치로써는 무너져 가고 있는 남조선에서의 식민지 제도를 결코 구출할 수 없다.

공기를 압축하면 할수록 폭발력이 강해지듯 인민들을 탄압하면 할수록 반항심은 더욱 격화되기 마련이다. 가중되는 탄압과 준엄한 시련은 사람들을 결정적인 행동에로 이끈다. 반미 구국 투쟁에 일떠 선 남조선 인민들을 감옥과 교수대, 그 어떤 폭압으로써도 결코 굴복시킬 수 없다.

통일에로, 자주 독립에로 흐르는 우리 인민의 대세는 파쑈 도당들의 군사적 폭압을 분쇄하면서 더욱 세차게 흐를 것이며 날로 강화되여 가고 있는 혁명 력량의 단합된 힘은 원쑤들을 결정적인 파멸에로 휩쓸어 넣고야 말 것이다.

남조선에서의 군사 테로 통치는 결국 식민지 통치의 전면적 붕괴 과정을 재촉할 것이며 조국 통일을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인민적 문풍 확립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평양 사범 대학 조선어학 강좌

조선어는 조선 인민의 오랜 세월에 걸친 사회 활동과 생활 과정에서 이룩되였으며 풍부하게 가꾸어져 왔다.

오늘 조선어는 우리의 력사에서 일찌기 찾아 볼 수 없는 찬란한 개화 발전의 시기에 들어 섰으며 과학적 조선어 연구도 높은 발전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의 말과 글은 인민의 요구에 맞게 내용이 풍부하면서도 쉽고 간결하며 정확하고 생동한 것으로 그 면모를 바꾸고 있다.

말을 하며 글을 쓰는 사람들의 관점과 립장이 바로 서게 되였고 그 표현 방식이 훌륭하게 되였다.

이렇게 우리의 말과 글이 활짝 꽃피게 된 것은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의 옳바른 지도와 그것을 받든 전 인민적인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은 해방 직후 우리의 모국어가 처한 구체적 실정을 정확히 타산하여 인민적 문풍을 확립할 데 대한 기본 방향과 대책을 제시하였다. 문맹 퇴치 사업, 조선어 교육의 전면적 실시, 출판물에서 '한'자 사용의 폐지, 조선어의 과학적 연구 등 적시적인 대책과 전 인민적 운동은 문화 혁명의 한 고리를 이루는 인민적 문풍 확립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인민적 문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면 문풍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에 포괄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

그것은 우선 말하거나 글쓰는 사람들의 립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언어 그 자체는 계급성을 가지지 않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공통적으로 복무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수단으로 하여 자기의 사상 감정을 표현하느니만큼 언어 사용상 측면에서는 그들의 계급적 처지, 립장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말하고 글쓰는 사람이 당적 립장에 튼튼히 서지 않는다면 당의 목소리, 인민의 지향을 반영할 수 없다.

이렇게 문풍 확립에서 일차적인 것은 립장, 관점을 옳게 세우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말이나 글이 객관적 현상의 본질, 생활의 본질적 측면을 진실하고 정당하게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 언어적 수법과 수단을 선택하며 우리 글의 특성에 맞게 보다 아름답고 생동하게 표현하였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이상의 두 측면이 유기적으로 통일되여야 문풍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준다. 그러므로 말하거나 글쓰는 사람의 립장만 옳으면 저절로 문풍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하여 언어적 수법과 수단을 옳게 리용만 한다면 당의 의도를 잘 반영한다고도 주장할 수 없다.

인민적 문풍은 어디까지나 말하고 글쓰는 사람의 관점과 내용, 언어적 형식의 통일 속에서만 확립된다.

이러한 내용을 가진 인민적 문풍을 오늘 한 계단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 것은 전면적 문화 혁명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근로자들에게 우리 당 정책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려는 데 있다.

우리는 항상 근로 대중이 알기 쉽게 말을 하고 글을 써야만 그들의 문화 수준, 문화적 소양을 더 높일 수 있으며 그들을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에로 추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떠나서는 또한 우리의 문학 예술, 라지오, 출판물 등을 높은 수준에

서 세련시킬 수 없으며 민족 문화를 고도로 발전시킬 수 없다.

이러한 인민적 문풍은 일시적인 깜빠니야나 해당 부문 일'군들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문풍 운동은 어디까지나 사상 투쟁의 중요한 고리이며 전 인민적 운동이다.

우리는 인민적 문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얻은 고귀한 모범을 가지고 있다. 특히 1930년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항일 빨찌산들은 일제를 반대하여 손에 무기를 들고 싸우면서 모국어의 고수와 순결성을 위하여 싸웠다.

오늘 우리는 여러 회상기를 통하여 김 일성 동지께서 얼마나 우리 말의 순결성과 인민성을 위하여 꾸준히 배려하였으며 몸소 그 앞장에서 모범을 보여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림 춘추 동지는 항일 빨찌산 투쟁 과정에서 군중이 알아 들을 수 있는 쉬운 조선말로 선전 사업을 해야 한다는 김 일성 동지의 간곡한 교시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들을 설명할 때에 목전의 과업을 망각하거나 각계 각층의 청년 군중에 대하여 분별 없이 하여서는 안 된다. 례하면 조선 청년들에게 만약 과거의 파쟁주의자들처럼 위협 공갈하며 말만 떼면 멋부터 부리고 건방지고 버릇 없이 굴며 긴 머리에 붉은 토시나 끼고 다닌다면 어느 청년들이 진실한 사람으로 믿어 주겠는가? 또는 공부도 하지 못한 농촌 청년들에게 하루 종일 부르죠아 사회를 타도하고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쟁취하며 쏘베트를 창건한다느니 국제주의가 어떻다느니 하는 식으로 말한다면 아마도 강연을 들은 청년들은 무슨 내용인지 리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청년 참 미친 사람이로군! 조선말도 몰라서 외국 말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혁명을 한다고 야단인가! 온종일 들었대야 조선 독립에 대한 소리는 한 마디도 없구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현실을 고려함이 없이 남이 알아 듣지 못하는 〈웅변〉으로 연설한다면 듣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는 말공부로 되고 말 것이다》 (림 춘추 《항일 무장 투쟁 시기를 회상하여》 51~52페지).

이 교시는 인민적 문풍 확립의 기본 사상을 천명한 것으로 된다.

김 일성 동지의 이와 같은 사상으로 무장된 항일 빨찌산들과 청년 공작원들은 항상 어데서나 인민의 립장에서 인민이 알아 들을 수 있게 말을 하고 글을 썼다.

《… 우리의 살'길은 어데 있는가! 나의 처지를 말하여 여러 동무들에게 그 진상을 소개하려 한다. 나는 돈 없고 밭 없는 빈한한 가정에서 성장하여… 항상 아버지의 뒤를 따라 호미, 괭이와 낫, 도끼를 메고 농토에 나가 일하는 소년이다…일상 아버지와 나는 검은 검대기와 싸우고 있는데 태양은 없는가 있는가를 구분치 않고 일하는 나의 등은 피부가 다 데 없어지고 이마에서는 구슬 피땀이 뚝뚝 떨어지고…》

이 글은 《화전민》 1937년 제 7호에 실린 《강도 왜놈의 통치에 신음하는 소년들에게 격함》의 한 대목이다. 얼마나 쉽고 생동한 표현인가! 그 한 마디 한 마디는 당시 우리 인민의 비참한 생활을 소박하고도 절절하게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글의 실례를 더 들지 않아도 오늘도 그 빛을 잃지 않고 우리를 무한히 격동시키고 있는 《혁명 가요》들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실로 《혁명 가요》의 매 구절들은 강력한 전투성과 호소성으로 대원들과 인민을 애국주의 사상으로,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으로 무장시키는 강력한 무기였다.

이렇게 될 수 있은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항일 빨찌산들이 오직 인민 대중을 위하여 싸운다는 확고한 립장에 토대해서 말을 하고 글을 썼기 때문이다.

이렇듯 깊은 인민적 문풍의 뿌리를 가지고 있음으로 하여 해방 후 우리 당 출판물은 인민적 문풍 확립에서 그처럼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 우리 당 출판물에는 혁명성과 당성이 높이 구현되고 있으며 로동당 시대, 천리마 시대의 기상이 나래치고 있다.

《우리의 문학 예술은 륭성하는 우리 현실과 아름다운 우리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하면서 꽃피고 있다.

좋은 세월에, 좋은 보건 제도에 의하여 옛날에는 고치지 못하던 병도 오늘에는 완치되고 있다.

장님이 눈을 뜨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리고 있는 것은 옛말이 아니라 오늘의 사실이다》(《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6페지).

이 짤막한 문장들이 그렇게 우리의 심금을 울려 주는 것은 쉽고도 명료하게 우리 사회의 본질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글은 오늘 우리의 출판물에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출판물을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비추어 볼 때 아직 만족스럽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더 다듬어 써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이에 있어서 우선 언어의 규범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문제가 제기된다. 지난 시기 언어의 규범화를 위한 사업에서 《규범 문법》, 《철자법 사전》, 《외래어 표기법》 등을 비롯한 많은 문법 저서들이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최근에 6권으로 편찬 발간되고 있는 《조선말 사전》은 그 의의가 크다.

언어의 규범화란 곧 우리 말의 내'적 법칙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전체 인민에게 리해되며 의무적으로 사용되는 규범을 세우기 위해서 흔들리는 언어의 요소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들을 본으로 하여 보급하는 운동이다. 이것은 교육 기관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매 시기 당의 정책과 결정 지시들을 인민 대중 속에 침투시키며 그의 집행에로 조직 동원하는 우리 당 출판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출판물들에서는 아직 이 규범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실례를 최근 출판물의 자료들에서 말해 보자.

첫째로 단어들을 정확하게 쓰지 못하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이 감자야 별 맛이지요. 달고도 고소하기란…(《평양 신문》)

여기서 《고소하다》는 말은 례하면 참기름 맛에 대해서나 쓸 수 있는 말이다. 감자맛은 《구수하다》고 써야 옳지 않을가?

…새 주택들이 아름답고 완고하게 건설되였다…(《기술 경제 신문》)

《완고하다》는 보통 사람의 성격적 특징을 표현할 때 쓴다. 따라서 여기서는 《완고하게》를 차라리 《견고하게》로 바꾸어 써야 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일부 기사에는 문법적 규칙이 맞지 않는 글도 있는바 《좋지 않는 행동이므로 못 그렇게 하였다》가 바로 그러한 실례이다.

또한 일부 기사들에서는 한 문장 속에서 병렬적인 동종의 관계에 놓을 수 없는 단어들을 함께 놓음으로써 론리에 맞지 않게 만들고 있다.

… 소년단 대렬은 소고와 피리를 울리면서 광장에 들어 섰다…(《소년 신문》)

여기서 볼 수 있는 《울린다》는 소고에는 쓸 수 있어도 피리에는 쓸 수 없지 않겠는가.

이상에서 지적한 몇 가지 실례들이 물론 우리 당 출판물의 질을 저하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당의 립장에서 말을 쓰고 글을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사소한 결함이라도 문제로 삼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의 규범에 맞는 글을 쓰기 위하여 단어를 골라 문장을 빈틈 없이 짜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언어의 순결성을 고수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언어 정화의 한 부문을 이룬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도 《로동자, 농민이 알아 들을 수 있는, 그들 자신의 쉬운 말》(김 일성,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로 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의 언어 생활에 적지 않았던 《이앙, 우사, 모돈,》 등과 같은 한'자어들은 《모내기, 외양'간, 어미돼지,》로, 《레쓰뜨란, 도매바자》와 같은 외래어들은 《식당, 도매소》로 고쳐졌으며 《우와기, 에리》와 같은 일본말 찌끼들이 자취를 감추게 되였다.

그러나 우리의 서사어 발전의 특수성에서 오는 그 여독은 아직 출판물에 남아 있다.

…하나의 꽁다리 목관도 내지 않고…

…남이 내 버린 파사를 회수하여…

…50그람을 분복케 하고…
…슈바 염낭에 손을 찌르고…

이 례문들은 최근에 나온 출판물에서 뽑아 낸 것들이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목관, 파사, 분복, 슈바, 염낭》 등 어휘들은 까다로운 한'자어들과 외래어, 사투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 특히 일본말 찌끼들을 언어 생활에서 깨끗하게 가시여 내며 모든 아름답고, 고상하고, 정교한 인민적 언어를 사용하여 그의 문화성을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두어와 서사어의 호상 관계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는 문제이다. 물론 서사어와 구두어는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절대적인 한계를 나누면서 서사어는 《격식》과 《정중성》이 있어야 하는듯이 간주하거나 과학 저술 문체의 특성을 말하는 것은 언어의 민주화, 대중화에서 해로운 경향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 측면에서 《김 일성 선집》의 언어의 모범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

《…그 다음에 새 직장의 건설, 새 용광로의 건설에 본격적으로 달라 붙어야 합니다 …》(《김 일성 선집》 제 6권, 421페지).

《…이렇게 하여야만 경제 건설에 대한 당의 정책을 틀어 쥐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김 일성 선집》 제 5권, 77페지).

《…또 설사 놈들이 달려 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때려 눕힐 수 있습니다》(《김 일성 선집》 제 5권, 342페지).

여기서 볼 수 있는 《달라 붙다》, 《틀어 쥐다》, 《달려 들다》, 《때려 눕히다》 등 어휘들은 구두어적인 것이였으나 서사어에 쓰임으로써 그 의미를 풍부하고 생동하게 만들고 있다. 《김 일성 선집》의 이런 영향을 받아 우리의 출판물들에는 《가로 차다》, 《매달리다》, 《걸리다》(걸린 문제의), 《이악하다》, 《받아 물다》 등 구두어적 단어들이 널리 쓰이게 되였다.

이 반면에 이전에는 서사어에만 쓰이던 《민감하다, 포섭하다, 설복하다. 공급하다》와 같은 단어들과 과학 술어로만 쓰이던 《수익성, 균형, 변증법, 전형, 형상, 생산력》 등과 같은 단어들이 구두어로서 활발히 리용되고 있다. 이렇듯 우리의 서사어, 구두어는 더욱 접근되여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체의 《틀》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내용의 적절한 표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민의 언어, 생활의 언어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고 음미하여 그 묘한 점이 어디에 있으며 어느 것이 실감 있고, 아름답고, 사상이 있고, 맛이 있는가를 알아 내서 써야 한다.

인민적 문풍 확립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언어의 규범성, 순결성을 보장하는 문제와 함께 우리의 말과 글을 간결하고, 정확하고, 명료하게 쓰는 것이다.

글의 간결성은 표현하려는 내용에 군더더기나 중복, 허식이 없이 집약적으로 표현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론리적 비약이 없는 이상 대담하게 생략하여야 하며 필요 없이 복합문을 쓰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성구, 속담, 격언, 비유 등을 널리 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말이나 글은 간결해야 하지만 또한 정확해야 한다. 자기의 사상이나 어떤 내용을 상대자에게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무리 좋은 언어적 수법들과 수단들을 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의 본질을 외곡하였거나 지나치게 과장하였다면 그 글은 생명을 잃어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적 현상의 본질을 똑똑하게 인식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사업의 정당성에서 나오는 절실한 요구이다.

이와 함께 말과 글은 명료하여야 하는바 어떤 내용을 말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무엇이 옳고 그르며, 특별히 강조하려는 것은 어느 것인가를 인차 가려낼 수 있도록 언어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언어의 명료성은 생동성과 밀접하게 련결되여 있다. 이야기하려는 내용을 상대자가 눈 앞에 선히 보는듯이 그의 경험과 지식에 의하여 무한히 상상할 수 있도록 써야 한다.

이렇게 되자면 말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이 우선 그 사실에 대하여 진심으로 느끼고 공감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인민적 문풍 확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를 최근 출판물의 실례를 들어 가지고 말하였다.

문풍을 바로 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항상 인민을 위하여 말을 하고 글을 쓴다는 당적 립장에서 수법들과 수단들을 잘 리용한다면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게 될 것이다.

문답학습

만물은 호상 련관되여 있다

우리를 둘러 싸고 있는 물질 세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물과 현상들로 가득차 있다.

이것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즉 서로 분리되여 고립적으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밀접한 련관 속에서 존재하는가 하는 이것은 세계관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언뜻 보기에는 그것들이 제각기 떨어져 무질서하게 존재하는듯 싶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미세한 립자로부터 태양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아메바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의 세계의 삼라 만상은 호상 련관과 상호 제약 속에서 존재한다.

세계에는 절대적으로 고립되여 존재하는 사물과 현상이란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다.

엥겔스는 말하기를 운동하는 물질을 고찰할 때 우리 눈에 제일 먼저 띄이는 것은 제 현상의 전반적, 보편적 호상 련관과 상호 제약이며 현상들의 무한한 련쇄이라고 하였다.

세계—이것은 서로 혼돈되고 무질서하게 널려 있는 사물들의 집적이 아니다. 그것은 질적으로 다양한 현상들과 과정들이 서로 불가분적으로 련결되여 있는 통일체이다.

물질 운동의 각이한 형태들은 호상 제약되고 있으며 서로 이행한다. 사물들의 호상 이행과 호상 작용 그 자체가 벌써 련관이다.

유기계는 무기계와 련관되여 있으며 또한 그로부터 발생하였다. 인간의 생활은 자연과의 호상 작용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인간은 자연 밖에서 일순도 존속할 수 없다. 인류 사회는 자연과의 련관을 떠난 그 무엇이 아니라 그의 특수한 부문이다.

사회 생활의 제 현상은 전반적 련관과 호상 제약 속에서만 존재한다. 사회—이것은 그를 구성하고 있는 각이한 측면들이 유기적으로 련관된 하나의 통일체이다.

전반적인 련관은 물질 세계—자연과 사회 뿐만 아니라 인간 사유에도 존재한다.

사유의 기초적인 형태인 개념을 들어 봐도 그렇다. 우리들의 개념들은 호상 련관된 사물들을 반영하는만큼 서로 련관되여 있다.

만물의 호상 련관과 제약에 관한 유물 변증법의 명제들은 과학의 성과들과 인류의 사회 력사적인 실천, 그리

고 인간 인식의 전체 경험을 개괄한 결과이다.

그러나 형이상학자들은 현실의 모든 사물들과 과정들을 《커다란 일반적 련관을 떠나서 고립적으로, 따라서 또 운동에서가 아니라 부동한 상태에서,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영원히 불변한 것으로서, 산 것으로서가 아니라 죽은 것으로서 고찰》한다(프. 엥겔스 《반듀링론》, 조선문 판, 25페지).

현상들의 호상 련관에 관한 형이상학적 부정은 현대 부르죠아 반동적인 관념론적 체계의 기본 특징의 하나이다. 그들은 형이상학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자본주의적 현실의 진상을 호도하고 있다. 근로 대중의 기아와 빈궁, 살륙과 전쟁 등을 자본주의 제도와는 본질적인 련관이 없는 전혀 우연적인 현상으로 묘사한다.

진정한 과학적 인식은 현상들의 전반적인 련관을 밝힐 때에만 가능하다. 우리가 보통 사물을 리해했다고 할 때 그것을 다른 것들과의 다양한 련관에서 파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하며 조직 집행할 때에도 반드시 다른 사업과의 련관 속에서 취급해야 한다. 현상들의 보편적 련관과 호상 작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이는 자기 앞에 부과된 혁명 임무를 능란하게 해결해 나갈 수 없다.

례하면 자재를 둘러 싸고 맺어진 기업소와 기업소, 직장과 직장 간의 유기적 련관을 구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기관 본위주의적 견지에서 자재와 원료를 취급한다면 나라의 전반적 리익에 큰 해독을 끼칠 수 있다.

모든 것은 환경과 조건에 의존한다. 환경과 조건은 사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주위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전면적인 파악은 현실에 대한 변증법적 태도의 주요한 측면이다. 장소와 시간의 일정한 조건을 떠나서는 그 어떤 사물도 정확히 리해할 수 없다.

레닌은 《맑스주의의 모든 정신과 그의 일체 체계는 매개 명제를 오직 (ㄱ) 력사적으로만 (ㄴ) 오직 다른 명제와의 련관 속에서만 (ㄷ) 오직 력사의 구체적인 경험과의 련관 속에서만 고찰할 것을 요구한다》(레닌 전집, 제 35권, 200페지)라고 말하였다.

가령 농촌 경리 발전을 들어 볼 때 그것은 매개 농업 협동 조합의 구체적인 환경과 조건에 의존한다. 자기의 자연 경제 지리적 특성들과 조건들을 전면적으로 타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 것은 창성군과 삭주군의 제반 경험이 실증해 준다.

현실에 대한 전면적 파악과 고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사물 현상들의 매개 련관의 다양한 형태들을 옳게 식별하는 문제이다.

주위 조건과 환경을 고려한다고 해서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린다는 식으로 모든 련관을 일률적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왜냐 하면 사물들의 복잡한 련관을 보면 꼭 같은 형태로 련관되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련관은 보다 밀접히, 다른 것은 덜 밀접히 련관되여 있으며 또 어떤 것은 몇 다리씩 거쳐서 련관을 맺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련관의 형태는 다양하다.

유물 변증법은 모든 현실적인 련관을 개괄하여 그 보편성의 정도와 그 성격 등에 따라서 직접적 및 간접적 련관, 내'적 및 외'적 련관, 본질적 및 비본질적 련관 등으로 그 형태를 구분한다.

그 중에서도 내'적이며 본질적인 련관은 리론 실천적 활동에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본질적인 련관이란 사물 자체의 본질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일시적이며 우연적으로 맺어지는 그러한 련관이 아니라 항구적이며 필연적인 공고한 관계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보편적이고 반복적이다.

유물 변증법은 이같은 내'적이며 본질적일 뿐만 아니라 필연적이며 보편적이고 반복적인 관계를 법칙이라고 한다.

법칙에 대한, 특히는 그의 객관적 성격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철학상의 대립되는 두 로선 간에는 치렬한 투쟁이 벌려졌으며 또 벌려지고 있다.

주관적-관념론은 자연과 사회의 법칙은 객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독립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법칙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인간 자신에 의하여 창조된다고 지껄이고 있다.

현대 반동적 부르죠아 철학가들은 자연과 사회에는 완전한 혼돈이 지배하며 이 혼돈 상태를 정리하는 것은 인간 리성이라고 한다. 이자들이 법칙의 객관적 성격을 부인하는 계급적 의미를 리해하기에는 어렵지 않다. 문제는 자본주의 멸망과 사회주의의 승리를 불가피적으로 규정하는 법칙을 근로자들이 파악하지 못하도록 혼란시키자는 데 있다.

맑스주의 철학은 세계란 결국 물질의 합법칙적 운동 과정이며 우리의 의식은 자연의 최고 산물로서 합법칙성을 반영하며 사람들은 이것을 실천 활동에서 타산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리용할 수 있을 뿐 그것을 철폐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다고 가르친다.

사물들의 내'적이며 본질적인, 말하자면 법칙적인 련관이 전반적 련쇄 체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논다. 맑스-레닌주의는 바로 이러한 련관 속에서 중심 고리를 찾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중심 고리— 그것은 현실적인 련쇄 체계에서 다른 모든 고리들의 운동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며 련쇄 전체의 운명과 본질적으로 련관된 그러한 고리이다.

혁명의 매 단계, 매 모멘트마다 우리 앞에는 일련의 과업들이 제기된다. 그 중에는 어떤 하나의 과업 해결 여하에 따라 당면한 또는 앞으로의 모든 과업들의 성과적 해결 여부가 좌우되는 그러한 과업이 있다.

우리 당은 전후 시기에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이 관건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인민 경제의 모든 다른 부문들을 가장 급속하게 발전시킬 수 있었으며 민족 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축성할 수 있었다. 그것은 중공업이야말로 인민 경제 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노는 중심 고리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실천적 활동에서 중심 고리를 포착하고 그것을 튼튼히 틀어 쥐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계급 투쟁에서나, 자연과의 투쟁에서나… 중심 고리를 찾아 내여 거기에 공격을 집중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자들의 확고 부동한 투쟁 방법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전략과 전술을 세우는 데서 기본으로 되여야 합니다》(선집, 제 6권, 462~465페지).

중심 고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중들의 력량을 조직 동원하는 문제이다.

대중들의 창조적 열성과 적극성에 의해서 하나의 중심 고리를 해결하면 발전 과정은 보다 높은 단계에로 이행하게 된다. 이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서는 또다시 새로운 중심 고리가 나선다.

그러므로 한 중심 고리를 해결하면 즉시 다음 중심 고리를 찾아 내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로 넘어 가야 한다. 이것은 부단 혁명의 요구이며 계속 발전하는 우리 사업의 객관적 요구이다.

림 종봉

설비 리용률이란 무엇인가

설비 리용률이란 설비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생산이나 건설, 운수 등에 실제 얼마나 리용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 주는 지표이다.

설비 리용률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은 해당 부문, 해당 공장 기업소들에서 있는 설비로써 생산을 증대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요구를 어떻게 관철시켰으며 설비 관리 사업을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 주는 척도로 된다.

사실 오늘 우리 나라의 여러 공장, 기업소의 설비 리용률 수준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그것은 비교적 생산 조건이 류사한 공장들을 대비하여도 잘 알 수 있다.

금년 상반년에 대안 전기 공장의 설비 리용률이 69.4%였다면 평양 전기 공장은 그 보다 훨씬 낮았으며 락원 기계 공장에서는 68.5%였는데 같은 중기계 공장인 라남 기계 공장은 50.40%밖에 되지 않았다. 이것은 평양 전기 공장이나 라남 기계 공장이 대안 전기 공장과 락원 기계 공장처럼 설비 관리 사업을 잘 하고 생산 조직을 개선한다면 적어도 18% 이상의 설비 리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비록 설비 리용률이 높은 공장, 기업소라 할지라도 더 높일 수 있는 허다한 예비들이 있다.

이 모든 예비들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설비 리용률을 부단히 높이는 것은 인민 경제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특히 금년도 우리가 예비를 백방으로 동원하여 제기된 과업들을 해결하자고 하는 조건 하에서 더욱 그러하다. 설비 리용률 제고는 실로 금년 계획 수행을 좌우하는 기본 문제의 하나로 된다.

김 일성 동지는 금년 신년사에서 《금년도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설비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생산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오늘 설비 리용률을 높이는 것은 새로운 기본 건설 투자를 하지 않고서도 이미 이룩된 강력한 중공업 및 경공업 기지들에 의거하여 우리 나라에서 생산을 결정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금년에 우리가 공업 부문에서 설비 리용률을 단 1%만 높여도 총액적으로 뜨락또르는 1만 6,000 여대, 자동차는 1만 600 여대, 세멘트는 561만 여톤, 캬바징은 4천 700 여만 메터나 더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매개 공장, 기업소에서는 단위 제품 생산에 직장비, 공장 일반비, 감가 상각비 등 간접비가 덜 들게 됨으로써 제품의 원가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원료로부터 완제품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류동 자금의 회전률을 촉진시키고 기업소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면 설비 리용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가?

설비 리용률에는 두 측면 즉 설비의 조방적 리용률과 집약적 리용률이 있다.

설비의 조방적 리용률은 설비를 얼마나 가동시켰는가를 보여 준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설비의 가동률이라고도 한다.

설비의 집약적 리용률이란 단위 시간 내에 설비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하여 실제적으로 얼마나 능력을 발휘시켰는가 하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그것들의 계산 방법도 각각 다르다.

설비의 조방적 리용률은 오늘 총 력일 시간 폰드에 대한 설비의 실지 가동 시간의 비률로써 계산한다.

이를테면 어떤 공장에 공작 기계가 모두 10대 있으며 1년 동안에 그것들을 도합 5만 9천 568시간 리용하였다고 하자. 이 때 총 력일 시간 폰드는

24시간×365(일)×10(대)=8만 7천 600시간이므로 설비의 조방적 리용률은

$$\frac{59,568}{87,600}\times 100=68\%\text{이다.}$$

설비의 집약적 리용률은 단위 시간 내에 발휘할 수 있는 설비의 최대 능력에 대한 실적의 비률로써 계산된다.

가령 황해 제철소에서 1주야 동안에 1,000톤의 선철을 생산할 수 있는 용광로가 750톤의 선철을 생산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 이 용광로의 집약적 리용률은

$$\frac{750\text{톤}}{1,000\text{톤}}\times 100=75\%\text{이다.}$$

설비의 집약적 리용률은 이 외의 다른 지표들에 의하여서도 표시된다. 제철소들에서 오늘 많이 계산되고 있는 용광로 유효 용적 리용 계수라든지 평로 저면적 1평방 메터당 1주야 출강량 또는 세멘트 소성로 시간당 생산량, 가성소다 전해조 조당 평균 생산량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러한 지표들에 속한다.

그러면 설비 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설비의 조방적 리용률과 집약적 리용률은 그 구체적 내용이 일정하게 다른 만큼 그 제고 방도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있다.

설비의 조방적 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기업소가 가지고 있는 전체 설비 중에서 가동하는 설비의 비중을 증대시키고 설비의 작업 휴지를 축소하며 설비의 가동 시간을 증가시켜야 한다.

명절, 공휴일 등을 제외하면 작업 휴지 시간은 주로 보수와 기계 사고에 의한 작업 휴지 시간과 원자재 및 기능공 부족에 의한 작업 휴지 시간 그리고 기타 인계 인수와 관련되는 작업 정지 시간들이다.

설비의 조방적 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설비를 항상 잘 정비하고 공무 부문의 역할을 일층 더 높여 예비 부속품을 충분히 장만함으로써 계획적인 예방 보수를 제때에 질적으로 하여야 하며 설비에 대한 기술 관리 사업을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사고를 근절할 수 있으며 보수 시간을 단축하고 다음 번 보수 때까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안 전기 공장의 경험은 이것을 잘 보여 준다.

대안 전기 공장에서는 금년 6월에 설비 리용률을 70.2%까지 높였는데 이것은 작년 6월에 비해 약 4.7%나 더 높은 것이다. 바로 이 4.7% 중에서

이 공장 일'군들이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예비 부속품을 3개월 이상 선행시킴으로써 보수 시간을 단축하여 높인 것이 약 2.8%라는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즉 작년 6월에는 총력일 시간 폰드 중에서 보수 시간이 6.3%였다면 금년 6월에는 약 3.5%였다.

설비 리용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또한 표준 조작법과 조작 규정, 주유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며 일단 사고가 난 다음에는 그 설비를 제때에 보수에 넘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비의 조방적 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또한 자재, 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하며 기능공 양성 사업을 가일층 개선하여야 한다.

설비가 아무리 잘 정비되여 있다 하더라도 자재, 원료가 제때에 보장되지 않고 그것을 다룰 만한 기능공이 없으면 설비가 돌아 가지 못할 것은 당연하다.

사실상 오늘 설비 리용률이 낮은 기업소들을 보면 원자재 및 기능공 부족으로 인한 작업 휴지 시간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평양 전기 공장에서는 금년 상반년에 그 시간이 각각 10% 이상씩 차지하여 도합 약 22%에 달하였다. 이 시간만 근절시켰더라도 설비 리용률을 22%나 더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설비 리용률을 제고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집약적 리용률을 높이는 것이다.

설비의 조방적 리용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설비는 제아무리 돌아도 년간 365일 이상 돌 수는 없다. 그러나 단위 시간 내에 그 리용 수준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실로 무한히 제고될 수 있다. 로동 생산 능률 제고의 무진장한 예비도 바로 설비의 집약적 리용률을 높이는 데 있다.

설비의 집약적 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선진 기술, 선진 기술 공정 및 선진 작업 방법을 광범히 도입하여 설비가 최고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설비를 보다 완성하고 생산 능력을 높여야 한다.

설비 리용률을 높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군들의 책임성, 창발성을 높이는 것이다. 경험은 설비를 직접 관리하는 운전공들과 지도 일'군들이 어떻게 창발성을 발휘하는가에 따라 설비 리용률이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림 수 웅

근로자 제 14호 (루계 207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발 행 • 1962년 9월 5일 인 쇄 • 1962년 9월 3일

7—230552 값 40전

МЕЖДУНАРОДНЫЕ
ПОЧТОВЫЕ ОТПРАВЛЕНИЯ

ČSSR, Praha,
Чехословакия, Прага
Bubenečska, 26
Gertruda Richterova
Гертруда Рихтерова
Москва-Центр, ул. Кирова
д. 13 кв 42, Глебов А.В.

Par avion
France, Paris 4e
Франция, Париж
Bretonvillers, 3
Mme Marie Tessier
Мария Тессье
Москва Д-284, Беговая ул.
д. 13, кв. 48, Миронова А.П.

Recommandé
Great Britain, Англия
London, W.C.1 Лондон
Queen Square, 7
Mr. W. Roberts
Мистер Робертс
Москва 5-140 Ольховская ул.
д. 31, кв. 10 Черкасов М.Н.

Международный ПОЧТАМТ

POSTE ПОЧТАМТ PO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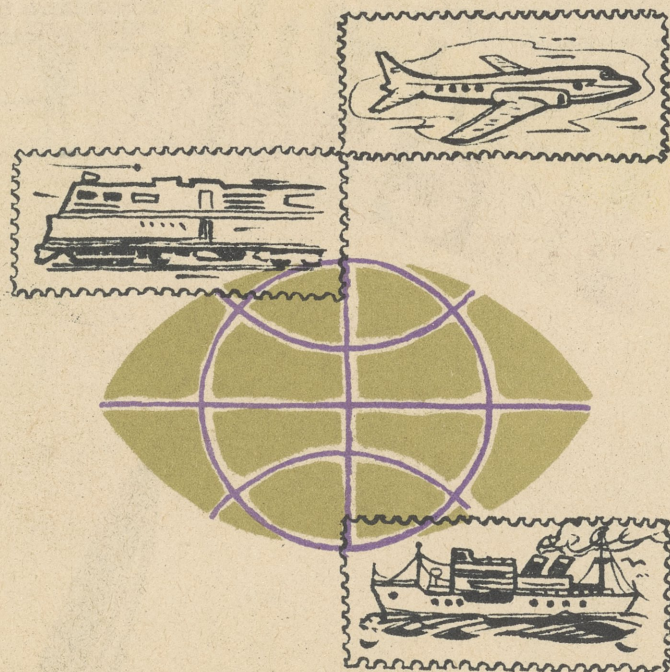
НЕДЕЛЯ ПИСЬМА

Приглашаем Вас
посетить
Международный
почтамт

Комсомольская пл., д. 1-а

ВНИМАНИЮ НАСЕЛЕНИЯ ГОРОДА МОСКВЫ!

С 8 по 14 октября 1962 года проводится „НЕДЕЛЯ ПИСЬМА"

Задачей эт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является активизация почтовой переписки в целях расширения культурных и дружеских связей, обмена опытом, мнениями и знаниями между людьми.

В дни «Недели письма»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почтамте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спецгаш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ый почтамт принимает и отправляет во все страны Мира письменную корреспонденцию, бандероли, телеграммы, мелкие пакеты с сувенирами.

Сдавая почту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почтамте, Вы значительно ускоряете ее отправку по назначению.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почтамте можно быстро переговорить по телефону с любым городом мира и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Большой выбор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конвертов и почтовых марок.

В специальном киоске «Союзпечать» на почтамте, Вы можете приобрести иностранные газеты и журналы.

Почтамт работает ежедневно с 9 до 21 часа

서적 안내

목민 심서 (1분책)

국판 370페지, 발행 부수 2,000부

우리 인민이 낳은 위대한 사상가이며 백과 전서적인 탁월한 학자 다산 정 약용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과학원 고전 연구소의 집체적 번역으로 된 《목민 심서》(牧民 心書) 1 분책이 발간되였다.

이 책은 1818년 조선의 참다운 애국자이며 탁월한 실학자인 다산 정 약용이 강진 귀양살이의 마지막 해에 쓴 것이다.

《목민 심서》(1 분책)는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국가의 부강 발전을 념원하는 자기의 정치적 견해에 기초하여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감행하는 리조 지방 관리들의 잔악성과 부패상을 비판하고 지방 관리들이 지켜야 하고 실제 행동에 옮겨야 할 행정 원칙과 그 방법, 지방 관리의 부임에서 해임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등을 여러 부문에 걸쳐 상세히 서술한 저서이다.

특히 이 책은 정 약용 자신의 직접적 생활 체험을 통하여 인민을 빈궁으로부터 구출하며 부강한 나라로 발전시키려는 애국적 념원을 반영하고 있다.

《목민 심서》는 (1 분책) 여유당 전서 7개집 중 《경세 유표》, 《흠흠 신서》와 함께 제 5집 정법집에 속하는 것이다.

금번 발행된 이 책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선조들의 우수한 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킴에 있어서와 저자가 그 죄악상을 폭로한 리조 봉건 사회를 연구함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이 책은 과학원 출판사에서 발행되였다